

이 속 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전통문양 및 한지를 활용한 5세유아의
미술활동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200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권 지 연

전통문양 및 한지를 활용한 5세유아의
미술활동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이 숙 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5 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권 지 연

인 준 서

권지연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5세 유아의 전통문양 및 한지를 활용한 미술활동에 관한 유아의 반응을 살펴보고 전통미를 알아가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유아들의 생활 속에 직접 참여하여 관찰하는 문화 기술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수원시에 위치한 H어린이 집의 기린 반 5세 유아들이었다. 연구기간은 2003년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총 9주간 실시하였으며, 연구기간 동안 주 2회씩 유아들의 생활 속에 참여하여 관찰하였다. 자료 수집은 참여 관찰과 교사와의 면담, 유아들과 수시로 비형식적인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비디오 및 사진촬영, 각종문서 고찰을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을 위해 참여관찰 일지, 면담내용 기록, 비디오 전사본, 각종 문서 자료 등을 분류, 조직,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통해서 전통문양 및 한지를 활용한 미술활동에 관한 유아의 반응을 해석하게 되었다.

첫째, 전통문양 및 한지를 활용한 미술활동을 통해서 문양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유아들은 조형적 현상이 갖는 규칙과 개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통해서 문양의 외각 형태를 인식하고 구별하였다. 또한 선, 면, 형태 등 문양의 조형적 특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문양의 특징에서 비롯된 분류의 개념과 규칙을 알게 되었다. 유아들이 문양의 형식을 파악하게 되자 좀더 논리적인 관찰을 하고 분류하려는 반응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교사의 안내를 받지 않고도 집단에서 다른 유아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지식을 구성할 수 있었다.

유아들은 전통문양의 상징적 의미를 응용해서 자신들이 표현한 작품에 상징을 부여했다. 유아들은 자신의 주관적 심상을 서로 공유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상징이 부여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이 발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문양의 이러한 특징은 유아들의 미술 표현과 언어적 표현을 통합시키고 구체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둘째, 유아들은 전통문양 및 한지를 활용한 미술활동을 통해서 전통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유아들은 한지로 한복을 만들면서 한복의 곡선미에서 오는 전통미와 생활습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의 전통문양이 현대적 느낌의 직선보다는 곡선의 미(美)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조상들의 여유와 풍류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한복을 만들어 봄으로써 유아들은 재료를 변형시키는 표현활동을 하며 창의력과 심미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미적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의복을 만드는 방법을 모르는 유아들이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의복을 만드는 방법을 유추해 나가면서 협동과 역할 분담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은 전통미술을 지키기 위해서 아동들이 실천할 수 있는 사항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유아들은 전통문양에 익숙해지고 나서 직접 문양을 보지 않고도 머리 속에 연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며, 생활 속에서 전통문양을 발견하고 일상생활에서 표상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유아들은 생활 속에서 접하고 있지만 인식하지 못했던, 거리의 벽이나 육교에 그려져 있는 전통문양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사전 기억을 연상하여 생활 속에서 사물과 연계시키기도 하였다.

넷째, 전통문양 및 한지를 활용한 미술활동 과정에서 현대미와 전통미의 조화를 꾀하는 표현의 자유로움을 체험하며 나타나는 유아의 반응을 볼 수 있었

다. 유아들은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보려고 노력함으로써 작품은 사물의 단순한 재생이 아니라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느낌에 대한 표현이 다양하고 자연스러워졌으며 재료를 자유롭게 능숙하게 활용하기도 했다. 특히 창의적인 자신의 문양을 만들 때에는, 미술적 표현과 언어적 표현을 일치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유아들은 이러한 다양한 조형 활동을 통해 전통 생활 소재인 한지와 전통문양과 친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용어의 정의	5
II. 이론적 배경	7
1. 전통문양에 나타난 한국미	7
2. 전통문양의 의미	9
3. 문양을 활용한 미술활동의 의미	12
4. 선행연구	14
III. 연구 방법	18
1. 연구의 대상	18
1) 연구기관	18
2) 유아와 교사	18
3) 기린반의 하루일과	19
2. 활동소개 및 절차	20
1) 연구절차	21
2) 활동소개 및 자료수집	22
3. 자료 분석	23

IV. 결과 및 해석	25
1. 문양을 만나다 : 새 친구와의 만남	26
1) 문양소개하기	26
2. 만날수록 익숙해지는 문양 : 새 친구와 친해지는 과정	31
1) 문양과 놀자	31
2) 문양과 새로운 놀이	36
3. 흠여지는 문양들 : 친구와의 갈등.....	40
1)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	41
2) 옛 문양과 현대적인 문양	44
4. 자꾸 생각나는 문양 : 친구가 그리워짐	46
1) 길을 걷다 마주친 문양	47
2) 문양과 친숙해지기	50
5. 한지와 문양, 친구가 되다 : 우정이 돈독해짐	57
1) 한지를 만나다	57
2) 한지와 문양, 자연으로 떠난 여행	62
3) 한지와 친해지기	66
V. 논의 및 결론	71
1. 논의 및 결론	71
2. 제언	76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기린반 하루 일과의 예	21
--------------------------	----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전통문양이 들어간 우리 조상들의 물건은 민화, 도예, 건축, 의복, 공예 등 너무나 다양하다. 심지어 우리 조상들은 한과나 떡에 떡살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문양을 찍기도 하였다. 이렇듯 우리의 조상들은 생활의 모든 것에 아름다운 문양을 새겨놓고 그것이 기원하는 상징적인 뜻을 담았다.

문양은 생활 속의 한 부분으로 있지만 그저 감상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기원과 소망을 담은 대상이며 상징적인 조형물인 것이다. 전통문양은 민족의 집단적인 감정과 사상을 담은 상징적인 미술이기에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고유한 정서가 스며들어 있기 마련이다. 우리나라 전통문양에서는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온 조상들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미(美)를 발견할 수가 있다.

'전통'이란 과거로부터 뿌리 깊게 이어져 내려온 문화유산으로, 단순히 관습이나 인습처럼 맹목적으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생활과 의식 속에서 재평가되어 되살아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통은 일정한 문화의 지속적인 축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문화 창조의 필수조건이 되며,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나아가 새로운 미래를 창조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과 발전도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지겠지만 교육을 통한 방법이 세계화,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교육이 풀어야 할 큰

과제이다. 그러므로 유아에게 우리나라의 전통예술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게 하고 조형물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전통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미술 교육은 우리의 조형 의식을 회복하여 민족 정체감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미술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문화를 발전시켜 앞으로의 세계와 정보와 문화의 시대를 이끄는 미래 지향적인 인간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양경전(2003)은 사물놀이나 구전동요, 국악동요 등이 유아 교육에 도입되고 있지만 유아들의 미술교육 부분에서는 전통을 가르치기 위한 미술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유치원의 미술교육에 있어서 전통 미술에 관한 지도는 우리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자부심을 길러주고 더 나아가 창의적인 표현력을 신장할 수 있다. 다른 미술 영역의 지도와 마찬가지로 유아의 생활 주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소재에 의한 표현과정과 감상이 함께 이루어지는 학습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미적 체험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전통미술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가치를 담아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게 재구성하여 적절히 제시하고 지도할 것인가가 문제로 부상하게 된다.

전통미술에 있어서 전통문양의 지도는 단순한 미적 감각의 지도만이 아닌 우리 민족의 미의식 고양활동이며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의 교육적 기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문양은 회화, 디자인, 공예, 조각 등 미술의 여러 분야와 관련을 가지므로 그 파급 효과도 크다. 또한 전통 생활소재의 발견 과정에서 조상들의 생활 풍습, 신앙, 관습, 의식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안 우리의 전통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승하고자 하는 의식의 발로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전통문양을 이해하는데 있어 구분이나 제한된 성과를 두지 않는 총체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즉,

전통문양을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재료와 기법에 대한 탐구로 자신만의 창의적인 문양으로 재창조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활동의 방안으로 전통미술 재료인 한지를 표현 활동에 같이 활용하였다. 한지는 변짐의 효과와 쉽게 변형이 가능하여 유아들에게 실패감 없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유아들은 미술재료로써 한지의 독특한 특징을 느끼고 이해하며 다양한 표현 활동을 통해 표현력의 신장을 가져 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화지와 다른 새로운 표현 매체로서 한지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관심을 갖도록 한다. 이선화(2002)는 매체의 재발견은 스스로 새로운 재료와 기법에 대한 탐구의 태도를 길러 재미있는 미술표현 활동시간이 되도록 할 수 있어 한지를 활용한 표현지도는 교육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한다. 한지 작업은 비록 서툴고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유아들로 하여금 손의 감촉을 통해 한지를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므로 우리 민족의 생활정서를 발견하게 한다. 또한 한지의 독특한 재료적 특성에 따라 빛의 여과성, 먹이나 물감과의 친화로 인한 발색, 변짐의 효과 등 다양한 표현의 신기함과 기쁨을 맛보게 한다. 유아 미술교육에서 한지를 통해 전통미술의 한 부분을 유아들로 하여금 쉽고 친숙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따라서 한지와 전통문양을 활용한 미술활동은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되새기고 이해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교육 수단이 되고, 우리 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보존하는 길이며, 세계로 뻗어 가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전통미술에 대한 교육은 어린 유아기부터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미술교육에 관한 연구는 초등학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전통문양을 활용한 미술프로그램, 전통문양을 활용한 미술지도방안을 양적으로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며, 전통문양을 활용한 미술활동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민화나

공예 같은 전통미술 감상을 위한 연구(강영미, 1999; 민혜숙, 2002; 서점순, 1997)나 한지나 떡살, 문양 등 전통과 관련된 소재만을 활용한 기존의 연구(박혜준, 2003; 양지원, 2002; 이은화, 2002; 정삼옥, 2000)는 많이 있었으나, 한지와 전통문양을 통해서 유아들이 전통미와 어떻게 친숙해져 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본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문화적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의 유아들에게 전통문양과 한지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통 문화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 기술적 연구이다. 전통문양 및 한지를 활용한 미술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표현기법을 적용하고 경험의 폭을 넓혀 심미적 안목을 키우고, 더 나아가 전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전통문양을 통해 전통미를 발견해가는 유아들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전통미를 알 수 있는 전통문양의 중요한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호소하고, 전통미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다. 더 나아가, 전통문양 및 한지를 활용한 미술활동 과정에서 한지 고유의 특성과 우수성을 이해하고, 전통문양의 철학 및 독창성을 발견하게 하여 전통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게 하고자 한다. 또한 유아미술교육에 있어서 전통미술교육의 필요성과 전통 재료인 한지의 표현 가능성과 특징이 갖는 교육적 의미를 유아의 반응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조형예술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전통문양이 담고 있는 형태적, 상징적인 특성을 현대적 미의식과 가치개념에 동화시켜 우리 것에 대한 의식을 키워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2. 용어의 정의

1) 전통문양(傳統紋樣)

전통(Tradition)과 문양(Pattern)이라는 어휘의 합성어으로써, 전통이란 역사적으로 전승된 물질문화, 사고와 행위, 양식,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인상, 갖가지 상징군을 말하며 광의적 의미로는 과거로부터 전해진 문화유산을 말한다(두산 백과사전, 2000). 문양이란 조형미술에 장식적으로 나타낸 여러 가지 문양을 말하며, 점, 선, 면, 색의 구성, 또는 그들의 질서 있는 배열로 이루어져 있고 건축이나 회화, 조각 또는 공예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사용된다. 전통문양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동물문양, 기하학문양, 자연상징문양, 식물문양으로 전통적인 문양의 네 가지 종류로 한정하였다. 다음은 각 문양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동물문양은 동물을 소재로 한 문양이다. 동서를 가릴 것 없이 나라나 민족마다 신화와 전설 속에는 상서로운 많은 상상의 동물이 등장한다. 상상의 동물 역시 동물문양에 포함 되어 있으며, 그 예로는 용문양, 학문양, 귀면문양, 봉황문양, 호랑이문양 등이다.

기하학문양은 직선이나 곡선으로 이루어지는 추상문양을 말한다. 기하학문양은 동식물 문양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동식물 문양이 생물의 자연 상태를 묘사한데 비해 기하학 문양은 자연의 현상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직선에는 수직선, 수평선, 사선, 점선, 파선 등이 있고, 곡선에는 원호, 타원호, 파선, 나선, 포물선 등이 있다. 직선을 이으면 평행문양, 파선을 이으면 파선문양 등 여러 가지 문양을 짤 수 있어, 편물, 직물, 그림, 문짜, 그밖의 문양을 만드는데 많이 쓰인다(한국의 무늬, 1995).

자연상징문양은 부락이나 천체, 논, 밭, 산, 바다, 들, 나무, 사람, 바위, 짐승들은 물론 해와 달과 별, 바람과 비 등 천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활의 풍요를 기원하고 있다(한국의 무늬, 1995). 그 예로는 십장생이 있는데, 십장생은 동물과 식물 그리고 자연물 중 대표적으로 장수한다고 믿는 10개의 대상으로 해,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불로초, 거북, 학, 사슴을 말한다.

식물문양은 식물을 소재로 문양을 넣은 것이다. 그 예로는 매화, 대나무, 국화, 난초, 모란, 소나무 등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전통문양에 나타난 한국미

전통문양은 한국인의 전통적 미의식의 한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의 문양과는 구별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통문양에는 자연에 대한 외경과 신령스러운 정감이 깃들여 있고, 이상 세계에의 동경, 행복의 추구, 사계절의 화초들이 동시에 피고 지는 환상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 그 속에는 아기자기한 장식미와 더불어 우리민족 고유의 미의식과 정서가 살아 숨쉬고 있다.

한국의 전통문양은 상고 이래의 토착적인 요인과, 중국 문양의 수용, 서양문화의 영향을 감안할 수 있으나, 한국 문화의 총체, 한국 예술의 전반적인 특성을 잘 들어낸다고 할 수 있다(허균, 1996). 한국문양 형성의 근본을 이루는 한국인의 전통적 미의식은 한국의 자연적, 종교적, 역사적 바탕 위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 민족이나 국가의 고유정신과 표현방식은 그 민족이나 국가의 자연적, 역사적, 종교적 상황 하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양을 볼 때에는 외형미와 내면세계를 함께 읽어야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우리의 전통문양은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사상, 정서와 가까운 자연의 모습인 꽃, 풀, 나무, 새, 짐승 등을 묘사한 것 외에도 신화나 전설을 상징하는 내용을 담은 문양이 많았다(안정선, 1998). 이렇듯 한국인은 대자연의 질서에 조화롭게 순응하면서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각종문양을 만들어냈다. 이 문양들은 대부분 자연에서 소재를 얻은 것으로 자연의 생태를 인간중심으로 관찰하고

해석한 것이지만 동시에 자연과 우주에 대한 외경심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다. 전통미의 이해는 우리의 전통미술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조상들의 삶을 이해하고 전통미술품을 통해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와의 차이를 분별하고 우리 조상들의 표현의 우수성을 이해 할 수 있는 미적 안목을 기를 수 있다(이미희, 2002).

문양은 본래 한 민족의 미의식(美意識), 생활의 여건과 감정, 정신적인 가치를 아울러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와 민족에 따른 특징적인 양상을 보인다. 문양에는 언어와 문자와 마찬가지로 그 민족이 살아온 환경에 따라 고유한 형태를 지니게 마련이다. 가령, 각 시대마다 새로운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아 유사할지라도 나름대로의 독특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기에 이를 전통문양이라 일컫는다.

한국문양은 곧 한국인의 생활정서나 의식의 표현이다. 한국문양의 시대별 변천과 조형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되어 온 전반적인 문화양상을 심층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예부터 우리 선조들의 무속신앙이나 민간신앙의 차원에서 지녀왔던 자연관은 우리의 미의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어왔다. 우리 선조들의 자연관은 결코 자연에 역행하지 않고 순응하는 태도를 지녀왔다(허균, 1996). 이렇듯 우리의 전통적인 미는 자연을 벗 삼은 생활과 토속적인 신앙과 예술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우리 조상들의 생활이 곧 신앙의 실천이었고 예술 표현의 장이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특성은 전통문양에서 잘 나타난다. 전통문양은 정신적 가치와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조화시킨 우수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이다(이은진, 2001). 우리의 문화유산 중 하나이며 무수히 많은 종류와 다양한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의 전통문양들은 자연의 질서와 조화로 빚어지는 화려하지도 않으며 소박한 미의 특질을 지녔고 조상들의 지혜와 숨결이 깃들여 있다(이현진, 1999). 문양은 의식의 반영이며 정신 활동의 소산임과

동시에 창조적 미화활동의 결과이다. 문양에 나타나는 자연은 실제 자연의 모습이 아니라 일반적인 통념에 의해 규정되고 표상된 제 2의 자연이라 할 수 있다(허균, 1996). 또한 문양은 생활미술의 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단순히 감상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기원을 담은 주술적 대상으로 또는 그런 정서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매개체 구실을 하고 있는 상징적 조형물이라고 볼 수 있다.

문양의 실체는 아름다운 것이기 전에 상징적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 전통 문양의 배후에는 자연과 우주에 대한 외경심이 깃들여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자연의 생태를 인간 중심으로 관찰하고 해석하는 인간 중심주의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제약된 현실에서 벗어나 보다 풍요하고 복된 삶을 추구하는 이상주의 정신과 그 이상적인 세계와 가치 기준을 옛 것에서 찾으려는 복고주의 정신이 문양의 배후에 폭 넓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허균, 1996). 의, 식, 주에 필요한 생활도구를 비롯하여 모든 조형물에 의도된 문양이 다양하게 있으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문양은 그 구성 요소들이 어떤 정돈된 시각미를 보여줄 때 일차적인 장식미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며, 동시에 표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문양은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그와 더불어 인간의 내적소망을 포함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오래 살고 싶은 소망, 행복과 기쁨이 늘 충만하기를 바라는 염원 등이 문양으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2. 전통문양의 의미

전통문양은 우리 민족의 집단적인 가치감정이 통념에 의해 고정되고 표상

된 제 2의 자연 또는 상징적 기호에 의해 표현된 미술이라 할 수 있다. 전통문양 속에는 각 문양마다 의미와 조상들의 소망을 담고 있으며,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은 오래살고 자식을 많이 낳고 복을 받기를 비는 내용이다.

전통문양의 종류는 동물문양, 자연 상징 문양, 기하학 문양, 식물 문양으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동물문양에는 용, 봉황, 새, 물고기, 도깨비 문양이 있으며 용이나 봉황문양등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등장시켜 신비성을 높이기도 하였다.

자연 상징 문양에는 오래 사는 열 가지 사물이 있다. 해, 산, 돌, 물, 소나무, 거북, 학, 사슴, 구름, 불로초는 오래살고 싶은 인간의 생각을 담아서 상징화된 문양이다. 이것은 향갑이나 문갑, 병풍 등에 적용하였다(김현수, 2002).

추상적인 기하학 문양은 마름모꼴, 네모 등의 기하학적인 도형이다. 기하학 문양에는 창살문양, 길상도 문양, 태극 문양이 있다.

식물문양은 4가지 문양 중 가장 많은 종류이며 가장 많이 쓰이는 문양이다. 식물문양은 도자기 벽면의 띠 형태나 상의 가장자리를 장식하고, 종류로는 연꽃, 모란, 매화, 난초, 대나무, 소나무, 포도, 당초문양이 있다. 포도 문양은 장수와 다남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소나무는 절개와 장수의 상징이며, 대나무는 품격과 절개의 상징하고 매화는 군자의 기상 국화는 오랜 삶을 상징한다. 난초는 지방마다 해석이 틀린데, 자손의 번영과 출세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김현수, 2002).

전통문양은 우리민족의 삶을 담은 전통문화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문양에 담겨진 상징적인 의미는 문양의 재료가 되는 사물에 얽힌 신화나 그것을 보는 조상들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문양 하나하나에는 조상들의 정서와 의식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조상들의 생활문화와 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정삼옥, 2000).

문양이란 인간의 예술적 의지와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해낸 산물로서 인간의 삶에서의 다양한 상징적 의미와 미적 의식이 구체화된 하나의 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Kandinsky(1910, 재인용)는 문양이 생명이 없는 존재라고 보아서는 안 되며 동양의 문양은 서양의 문양과는 다른 자기 고유의 내적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양은 집단적인 가치 감정의 상징물로 일반화되어 있으며, 예술적 욕심 없이 소박한 생활 욕구에 따라 전해 내려오는 틀을 존중하면서 그려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재고해보면, 문양은 그것을 향유하는 집단 사이에서 약속된 부호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문양이 묘사하고 있는 사물이 눈앞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람들은 문양만 보고도 어떤 적절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특정 사물이 다른 세계를 연상 시킨다던가 다른 사물과 유사하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 현실적인 욕망을 담아서 그것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이 주술의 사고 원리이다(허균,1996). 그러므로 문양은 자연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에서 만들어 지지만 단순히 자연을 복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창조적 의지가 개입된 예술 작품인 것이다. 또한, 문양은 의식의 반영이며 정신활동의 소산임과 동시에 창조적 미화활동의 결과이다. 이런 면에서 문양에 조형 미술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주제의 성격이나 표현내용으로 볼 때 순수감상용 미술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순수 감상용 미술이 작가 개인의 주관적 사상과 정서를 표현한 것에 반대 성격으로서, 문양은 집단적인 가치 감정의 상징물로 일반화되어 있다.

문양은 좁은 의미로 말하면 문양의 개념으로 국한되지만, 그 범위를 확대하여 생각해 보면, 미적 쾌감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물체를 장식하고 있는 점, 선, 면 그리고 색에 따라서 구성, 배열된 그림의 모양을 말한다(황호근, 1978). 질감(texture)에 따라 공예, 회화, 건축 등의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장식적 효과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문양의 실제 혹은 공상적 물상의 양식화된 형태로서 구분하여 시대적, 사회적 질서 속에 전개된 조형 단위를 의미한다.

3. 문양을 활용한 미술활동의 의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자신이 속한 세계의 특질들을 경험할 수 있는 감각체계를 가지고 태어난다. 주변에 있는 다양한 형식의 문화를 경험하며 인간은 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Eisner, 1999, 재인용). 문화의 형식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상상하는 것을 내면화 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내면화한 것을 사회적인 과정으로 만들어 다시 자신의 생각과 느낌, 상상하는 것을 표현해 내는 것이다.

미술활동은 우리의 문화가 가진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이다. 미술은 문화의 형식을 이해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내는 과정, 다시 말해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고 표현하고 싶은 것을 가능하게 한다(황향숙, 1998). 그렇기 때문에 학습과 반복을 통해 세계의 복잡하고 미묘한 차이점을 경험하고 기억해내는 미술활동은 유아들에게 좋은 교육의 도구이다.

미술활동에서 유아는 선, 형태, 색을 조절하고 재료를 다양하게 다루며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상상을 하고, 제작 과정에서 교사와 또래간의 상호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사고과정을 넓혀 나간다. 그리고 완성된 작품을 가지고 다양한 태도로 감상하게 된다.

전통문양에 나타난 전통 색은 음향오행사상에 바탕을 둔 청색, 백색, 적

색, 흑색, 황색의 기본 색으로, 이 색은 우리민족의 미의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은진, 2001). 전통문양에 나타난 색은 유아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져 오는 고유의 미적 감각을 깨닫게 해 주는 점에서 필요하다. 전통문양과 색채에 나타난 우리 민족의 미의식을 살펴보면 감성과 직관을 바탕으로 자연과 우주의 원리를 따르고자 하는 겸손한 생활 자세와 유교, 불교, 도교, 무속신앙이 서로 결합하여 민족적 정서를 형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결부된 색채와 전통문양이 조화롭고 화려하게 때로는 소박하게 생활 속에 자리하면서 우리 민족의 생활과 신앙은 미술과 결합하여 우리 민족의 독특한 미의식을 형성해 왔다(안준철, 1994).

문양을 활용한 미술활동에 있어서 상대적인 불가결의 요소인 한지를 재료로 들 수 있다. 한지의 부드럽고 따뜻한 재료적 특성은 한국적 감성과 미의식이 내포되어 있어, 한국인의 정서와 감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재료일 뿐 아니라 평면과 입체조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지는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연을 그대로 이용하고 자연스러운 질감과 자연의 색을 그대로 가지고 왔기에 우리 민족의 생활과 한국 미의식이 깔려 있다. 이렇듯 한지는, 전통적인 미술 재료로서 고유의 표현 기법의 발달과 함께 민족적 자긍심을 일으키고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해 준다는 데 가치가 있다.

유아들은 통합된 다른 활동들을 통해 자연과 문화의 아름답고 질서 정연한 세상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개발한다(오종숙, 1996). 전통문양 및 한지를 활용한 미술활동은 황향숙(1998)과 오종숙(1996)이 제시한 것처럼, 창의적인 표현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통합된 활동들의 적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유아 미술활동은 유아주변을 둘러싼 시각세계를 탐색하고 사고하며, 인류의 문화적 자원을 이해하고 감상하도록 돕는다. 이때 유아들은 유아 자신의 생각과 느낌 감정을 표현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는 점에서 중요하

다. 또한 유아들의 미술활동은 유아 자신과 유아 주변의 세계에 대한 유아의 생각과 느낌뿐만 아니라 탐색하고 경험한 것을 표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이정환, 1995, 재인용).

Gaitskell(1982)은 조형작품 제작과 그것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주변의 세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시각예술은 그 사람의 가치와 신념이 제작하는 조형형태에 독특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시각예술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와 감상을 통해 현대문화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이규선 외, 1994).

4. 선행연구

유아교육 분야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통놀이 연구는 현장의 교사들에게 전통놀이를 통한 전통교육이 유일하고 적절한 방법인 것처럼 오인할 여지가 있다. 정재걸(1993)은 전통교육은 체험위주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통미술을 소재로 한 미술활동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초등교육에서는 전통미술을 활용한 전통교육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전통조형품에 나타난 문양을 이용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문양에 담겨진 의미는 민족의 염원을 담은 상징적 조형물로서 전통 교육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통미술교육으로서의 장점을 갖고 있다.

초등교육에서는 전통문양을 활용한 전통미술 교육연구(이혜연, 2003; 김수혜, 2002; 이현진, 2001; 정삼옥, 2000), 전통문양이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연구(안준희, 2003; 이은숙, 2002; 박수경, 1998), 전통문양을 감상과 응용을 통한미술지도 방안(민혜숙, 2002; 이복자, 2002; 김영란, 2000),

컴퓨터를 활용한 전통문양지도(이은진, 2001)와 같이 전통문양을 활용한 전통미술활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문양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연구한 안준희(2003)는 대부분의 활동에 대해 아동들은 쉽고 재미있다고 반응 했으며 표현 감상 학습에서는 문양의 의미를 생각하며 나름대로의 다양한 표현을 시도하였다고 한다. 박수경(1998)은 아동이 일상 생활 속에서 전통문화의 미적 가치를 발견하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민화를 이용하여 감상과 표현 활동을 하는 민화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전통미술에 대한 흥미가 증가하였으며 더불어 인식과 표현 능력도 향상 되었다고 한다.

강영미(1999)는 민화에 나타나는 전통문양을 이용해 미술활동을 함으로써 아동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고, 정삼옥(2000)은 도자기에 나타난 전통문양을 이용한 감상과 표현 활동을 함으로써 아동의 전통미에 대한 인식과 표현력을 신장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염정선(1997)은 전통미술품의범위를 여러 가지 전통생활도구까지 확대함으로써 아동이 생활 속에서 전통의 미를 체험하고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표옥선(1999)은 전통적인 문양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도하는 것은 우리의 것을 확인하는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현대 감각에 맞는 새로운 교육 방법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였다고 한다.

김영란(2000)은 고궁이란 주제를 선정하여 전통문양을 미술지도 내용에 접목하였는데, 아동들은 고궁에 있는 문양을 보고 그림으로써 전통문양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높였다고 하였다. 박수경(1998)은 전통미술교육을 통해 조상들의 삶을 이해하고 전통미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졌다고 하였으며, 이은진(2001)은 전통문양의 지도를 통해 아동들이 우리 민족의 미의식과 가치관을 깨닫고 전통문양을 포함한 전통문화의 창의적인 계승의지가 자라났다고 했다.

오지연(1999)은 전통조형품에 나타나는 문양은 생활에 대한 주관적 의식의 반영이며 의사를 전달하는 또 하나의 언어로 문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인류가 그 동안 이루어 놓은 회화, 조각, 서예 등 모든 조형미의 원천이 되었다고 한다.

전통한지는 조상들의 문화를 엿볼 수 있다는 교육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통미술교육으로서의 장점을 갖고 있다. 한지는 표현기법이 실용적이고 손쉽게 만들어져 지도가 수월하며 전해져 내려오는 민예품에 수도 다양하여 감상 교육에 적합하다(오옥선, 2000). 이선화(2002)는 한지활동을 통해 잠재된 개성과 표현능력이 늘어나고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를 배울 수 있다고 했다.

양지원(2002)은 한지를 미술표현 재료로 사용한 결과 아동의 창의력과 미적 감각 및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졌으며 관심도 또한 배가 되었다고 한다. 정현주(2000)은 한지활동을 통해 한지에 대한 자신감이 높게 나타나고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했다. 이렇듯 초등교육에서는 전통미술을 활용한 전통교육에 관한 연구로 전통문양 뿐 아니라 전통 재료인 한지에 나타난 문양을 이용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유아교육 분야에서의 전통문양에 관한 연구는 떡살을 이용한 전통문양이해에 관한 연구(김현수, 2002), 민화를 중심으로 한 유아 전통미술 프로그램연구(임양선, 2001), 전통문양을 활용한 다문화미술에 관한 연구(유혜윤 2003), 전통미 함양을 위한 유아 미술교육 프로그램(양경전, 2003)과 한지 작업을 통한 미술지도(한미숙, 2002)가 전부이다.

김현수(2002)는 전통문양에 대한 이해의 변화에서 유아들은 떡살에 나타난 전통문양을 이용해 미술활동을 함으로써 전통문양의 종류 명칭, 의미, 형태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생활 속에서 전통문양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유혜윤(2003)은 전통문양을 활용해서 유아들은 다

문화에 대해 알고 미술의 표현력이 늘어났다고 한다. 양경전(2003)은 전통 미 함양을 위한 미술교육을 함으로써 유아들은 우리 것에 대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위에 제시한 선행 연구의 사례를 통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통문양과 한지를 응용한 미술활동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아교육에서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의 대상

1) 연구기관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연구기관은 수원 영통에 있는 H어린이 집이었다. 수원시에 위치한 H어린이집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며,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다. H어린이집은 연구자가 1년 전부터 오가며 미술활동 프로그램에 관해서 제언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사전정보가 풍부하고 연구문제에 대해 교사와의 대화를 자유로이 나눌 수 있는 여건이었다.

H어린이집은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살구색 페인트칠을 한 아담한 건물이다. 5개의 교실과 주방, 유희실, 소그룹 활동실, 교사실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직원은 총 7명으로 원장 선생님, 각 반 담임교사 보조교사가 있었다.

H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은 15년이 넘는 보육교사 교사 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린이집 역시 10년째 운영하고 있다.

학급구성은 만3세 반은 두개학급 만4세 반은 한 개 학급, 만5세 반은 두개의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유아들은 9시에 도보나 버스로 등원을 시작해서 자유놀이와 간식, 집단 활동 순으로 하루 일과가 진행된다.

2) 유아와 교사

H어린이집에서 주 관찰대상으로 삼은 반은 기린반 이었다. 대상 유아의 사회 경제적인 수준은 중산층이다.

기린반은 만 5세 반으로 여아 12명, 남아 12명으로 전체가 24명이며, 중 일반 수업을 한다. 기린반 유아들은 어린이집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이들 중 17명은 3, 4세부터 재원한 유아들이다. 7명은 가정에서 어머니의 양육을 받다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으며 그중 5명은 형제와 같이 다니고 있었다. 기린 반 유아들은 미술활동을 좋아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특히 한지를 접어 물감에 염색해서 나온 여러 가지 모양의 종이를 교실 창문에 붙이는 활동에 호기심을 보였다.

기린반의 담임교사인 김윤미(가명)교사는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보육교사 1급의 정교사로 7년의 교육경험이 있는 교사이다. 김윤미 교사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좋아 교사의 길을 선택했고, 각 유아의 성격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 김윤미 교사는 유아들의 미술활동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미술활동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많이 하고 지식이 풍부하였다. 특히 유아미술에 관심이 많아 전시회에 자주 참여하며 그 외에도 유아와 관련된 강습회가 열리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김교사는 질적인 연구에 대한 이해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미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유아들은 그림을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한다고 했다. 처음 만나 연구자가 논문연구의 목적을 이야기했을 때 김윤미 교사는 연구를 통해 자신이 유아미술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고 유아미술활동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거 같아 기쁘다고 했다.

3) 기린반의 하루일과

본 연구의 관찰 학습인 기린반의 하루일과는 9시 유아들의 등원으로 시작된다. 9시경 도보 또는 어린이집 등원 버스로 유아들이 등원을 한다. 교실에 들어온 유아들은 출석부에 도장을 찍은 후 가방과 옷을 자기자리에 정리하고, 유아들은 바로 놀이를 선택하여 자유선택 활동을 한다.

정리정돈을 다 마친 유아들은 오전 간식으로 우유와 과자를 먹는다. 간식을 먹은 후 유아들은 대집단으로 피아노 앞 카페트에 모여 앉은 후 교사의 지시에 따라 남아, 여아로 나뉘어서 화장실을 다녀온다. 화장실을 다녀 온 유아들은 대집단으로 모여 앉아 교사와 주제와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특별활동 시간을 갖는다.

이야기 나누기는 활동주제에 관련된 이야기 나누기, 새로운 활동자료 소개로 진행된다. 이야기 나누기가 끝나면 교사의 피아노 소리에 맞춰 유아들은 노래를 부른다.

12시부터는 점심식사 시간이다. 손을 씻고 유아들은 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각자 정해진 자리에 앉는다. 점심식사에는 노래로 된 기도를 하고 점심식사를 한다. 기린반 유아들은 점심을 먹은 후 이를 닦고 조용한 놀이를 하거나 교사가 보여주는 비디오를 보며 휴식을 취한다. 1시에 자유놀이를 하고 1시 30분 부터 대집단 활동을 시작하는데, 교사의 주간 교육계획안에 따라 활동이 진행된다. 3시 30분부터는 정리를 하고 오후간식을 먹는다. 4시 30분이 되면 다시 대집단으로 모여 앉아 하루활동을 평가하고 4시 40분부터 귀가 준비를 한다.

<표 1> 기린반 하루 일과의 예

시간	활동
09 : 00 ~ 09 : 30	등원 및 휴식
09 : 30 ~ 10 : 30	자유놀이
10 : 30 ~ 11 : 00	정리정돈 및 오전 간식 시간
11 : 00 ~ 12 : 00	이야기 나누기 및 음률활동
12 : 00 ~ 1 : 00	점심시간
1 : 00 ~ 1 : 30	자유놀이
1 : 30 ~ 2 : 30	대집단 활동
2 : 30 ~ 3 : 30	낮잠 자기
3 : 30 ~ 4 : 00	오후간식
4 : 30 ~ 4 : 40	평가
4 : 40 ~	귀가하기

2. 활동소개 및 절차

1) 연구절차

본 연구가 순조롭고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본 연구 두 달 전부터 한 주에 2번씩 교실을 방문하여 유아들의 이름과 얼굴을 익혀 레포를 형성하고 기린반의 물리적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하였다. 예비관찰 기간동안 관찰한 내용은 현장에서 빠르게 메모하는 훈련을 하였고, 유아들이 녹음기나 사진 촬영에 익숙해지도록 하였다. 또한 관찰한 내용을 현장에서 적어 메모하는 훈련을 하였고, 유아들이 연구자가 항상 무언가를 적고 있다는 점에 익숙해지도록 하였다.

예비관찰은 5주간이며 2003년1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실시하였다.

예비관찰 동안 유아들과 함께 보내며 유아와 교사들과 친숙해지기 위해 노력하였다. 유아들이 집으로 간 뒤에는 교사의 업무를 도우며 유아들의 놀

이경향, H어린이집의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해 교사와 면담을 하며 조사를 하였다. 기본적으로 주 2회 자유선택시간과 미술활동시간을 관찰하는 것으로 하고 유치원일정에 따라 주 1회에 관찰을 한 적도 있다.

2) 활동소개 및 자료수집

전통문양 및 한지를 활용한 미술활동을 위한 수업모형은 한국교육 개발원에서 고안한 수업의 모형(교육부, 1997)과 박수경의 민화학습 프로그램(1998), 이혜주의 학문기초 유아미술프로그램 개발(2000)을 근거로 미술수업모형을 만들었다. 학습과정은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작품감상하기, 재료 및 표현방법 탐색하기, 표현하기, 유아들의 작품 감상하기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였다. 미술활동은 주 2회씩 실시되며, 활동의 구체적인 목표와 활동방법, 자료는 부록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본 관찰은 2003년 12월 16일부터 2004년 2월 13일 까지 9주 동안 이루어 졌다. 연구기간동안 참여관찰과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예비관찰에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연구방향을 정하고 김교사와 의논을 하여 어린이집 일정에 따라 본 관찰일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기로 하였다. 수시로 교사와 비형식 면담을 하였고, 유치원 근무시간 외에는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며 유아미술에 관련이 있는 전시회가 있으면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료를 수집하는 동안 본 연구자가 만들고 구성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교실에서 일어나는 교사 유아들 간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 테이프, 유아들의 행동의 변화를 보기 위해 일부 활동을 비디오로 녹화한 녹화 테이프, 내용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교육계획안이 나오는 내용분석, 활동의 주제와 재료목록 분석표, 유아들이 표현한 작품이 있다. 유아들의 작품은 진행 순서대로 수집하여 스캔 작업을 한 후 분석하였다.

유아들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기록하기 위해 연구자는 소형 녹음기를 지니고 16회의 미술활동을 모두 녹음하였다. 녹음 자료는 미술활동이 진행될 때마다의 내용이며 녹음자료 전사량은 A4용지 84매이다.

비디오 녹화는 유아들이 재료로서의 한지를 활용하는 방법, 녹화자료는 총4회에 걸쳐 60분 테이프 4개에 수집되었다. 자료 분석 시 내용과 해석을 재검토 하는 자료로 이용되었다. 비디오 기록은 녹음에 비해 활동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행동과 상호작용을 모두 기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더욱 객관적이고 자세한 분석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처음에는 비디오에 익숙지 않은 유아들이 비디오 찍는 것을 의식하였으나 일주일쯤 시간이 지나자 비디오에 관한 거부감이 사라졌다.

전통문양과 한지에 대한 미술활동의 교육자료, 스크랩을 계획하여 기록하였으며 전통문양과 한지를 활용한 미술활동과 관련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기록하였다. 교사와의 면담내용과 미술활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유아들의 반응과 변화를 기록하였다.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하는 동안 연구대상자와 자주 접촉하고 자주 만나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연구의 타당성을 갖도록 노력하였다. 짧은 관찰기간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해석의 왜곡을 방지하고자 녹음, 사진촬영, 비디오 녹화, 문서수집, 연구자 노트 등의 자료 수집을 통해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해석 판단의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다.

관찰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본 연구의 해석, 설명에 대한 검토를 거침으로

써 자료의 의미와 분석에 왜곡을 피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는 세밀한 묘사를 위해 가능한 관찰 기록지에 보다 자세한 내용을 남기도록 했으며 세부적인 묘사를 위해 행동이 일어나는 전과후의 맥락적 정보나 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유아들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유아들이 보이는 행동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유아들의 전통미의 발견에 대한 반응과 생활에서의 전통미의 발견 등을 심층적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연구자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과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던 편견이나 모습을 들여다봄으로써 주관적 대상자들의 의미를 단정 짓지 않고자 하였다.

연구자의 지도교수 및 질적 접근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쓴 몇몇 경험자들에게 조언과 비평, 새로운 견해를 제시 받음으로써 연구자의 편견을 줄이도록 하였다. 한편, 연구자의 자료 분석 및 해석이 연구현장의 실제 상황과 부합한다는 타당도를 보증하기 위해 구성원의 검토의 과정을 거쳤다 (Merriam, 1994).

Taylor와 Brogdan(1984)은 질적 연구에서 자료 수집과 분석은 함께 진행 된다고 하면서 오랜 시간을 끝수록 연구자의 관점이 흐려지고 미결된 부분을 해결하는 일이 어려워지므로 분석은 자료 수집과 함께 가능한 빨리 진행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관찰 기록에 수집된 내용들을 당일 전사하여 몇 차례 사례들을 읽고 검토하는 가운데 자료에서 떠오르는 핵심적인 단어들을 다른 종이에 옮겨 적었다.

유아들의 반응과 작품을 관찰하여 기록하고 분류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분석을 하였다. 연구자는 보다 심층적인 과정을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현장기록을 읽고 다른 자료들을 주의 깊게 읽었으며 분류된 사례들을 읽어가며 해석하는 작업을 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목적은 5세 유아들에게 우리조상의 생활감정을 담은 전통문양과 한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미에 대한 유아들의 반응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전통문양 및 한지를 활용해 미술활동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미술활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유아들의 언어적 표현과 미술적 표현, 행동에 따르는 감정의 변화 등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였다. 수집된 현장 자료들과 관련문헌을 검토하고 통찰해 본 결과, 유아들은 문양을 통해 일련의 인지 과정을 거치며 전통미를 이해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미술활동은 대부분의 유아들이 생소한 것들을 친근한 것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문양에서 나타난 상징과 의미는 조상들의 생활 의식, 풍습 등 전통 문화와 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었다.

전통문양 및 한지를 활용한 미술활동은 새로운 친구를 만나서 우정을 쌓는 과정과도 같다. 친구가 되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겪으며 발전해간다.

처음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며 탐색 과정을 거치게 되고, 함께 놀이를 하며 마음을 맞추는 동안 새로운 친구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된다.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등 새로운 친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한다. 마음만 맞게 된다면 진정한 친구로서 우정을 쌓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서 항상 마음이 잘 맞는 것은 아니다. 아주 사소한 말다툼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한다. 그러다 이해와 화해를 통해서 갈등이 해결되면 우정은 더욱 돈독해진다. 우정이 돈독히 쌓이게 되면 곁에 없으면 그리워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

다가도 문득문득 생각이 나며,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나누고 싶어 한다. 이제, 곁에 없어도 항상 생각나고 위안이 되는 진정한 친구가 된 것이다.

전통문양 및 한지를 활용한 미술활동은 이렇듯 새로운 친구를 만나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과도 같다. 전통문양에 대해 새로 알게 되었을 때는 새로운 호기심이 발동하고 관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건축, 회화, 공예, 음식, 옷 등 생활 곳곳에 새겨져 있는 전통문양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알아갈 수록 친숙해 지게 된다. 그러나 전통문양과 현대에 사용되는 문양과의 구분에 혼돈을 겪는 갈등이 겪기도 한다. 하지만 전통문양과 현대문양의 혼돈에 관한 갈등을 해결하고나면 전통미에 대한 재발견과 함께 전통 문화에 대해서 더 친숙해지게 된다.

이렇듯 전통문양 및 한지를 활용한 미술활동은 곁에 있었지만 언제나 지나쳐 왔던 전통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하는 도구로써 첫째, 문양을 만나다, 둘째, 알아갈수록 익숙해지는 문양, 셋째, 흠어지는 문양, 넷째, 자꾸 생각나는 문양, 다섯째, 한지와 문양 친구가 되다 등의 과정이 일어난다.

1. 문양을 만나다 : 새 친구와의 만남

전통문양 및 한지를 활용한 미술활동은 처음 만난 문양을 서로 소개하면서 시작된다.

1) 문양소개하기

유아들은 문양을 구분하는데 있어, 문양의 의미와 종류 또는 선, 색 등의 피상적인 분류 뿐 아니라 대칭과 비대칭 등 문양의 조형적 형상이 갖는 규칙과 개개인의 주관적인 생각과 느낌을 통해서도 구별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준비한 전통문양 이미지 스크랩을 본 유아들은 다양한 색깔과 형태의 이미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스스로 동물문양과 식물문양의 종류를 나누는 놀이로 발전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전통문양에 관한 사진집을 감상한 유아들은 여러 종류의 문양을 보며 신기하고 즐거워했으나 금새 싫증을 느끼는 아이들이 많았다. 문양 이미지 스크랩을 본 유아들은 사진 자료보다 많은 흥미를 느끼며 적극적으로 질문을 했다. 문양을 소개하기 위한 활용 도구에 있어서 유아들이 사진보다는 이미지를 더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 사례는 유아들이 전통문양을 만난 후, 서로를 소개하는 과정이다.

문양 스크랩북을 보던 승희가 문양을 같은 것끼리 모으자는 제안을 하여, 문양 스크랩북을 오려서 놀이 활동의 도구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유아들은 감상 자료집에 있는 문양들을 활용해 스스로 놀이로 연결시켜 전통문양을 종류별로 구성하였다.

승희 : 이거 잘나도 돼요?

(연구자가 스크랩한 자료집의 잘려져 있는 문양등을 보고.)

남규 : 뭐 하려고? (말을 가늠채며 교사의 눈치를 살폈다.)

승희 : 동물이랑 식물이랑 같은 것끼리 모으려구.

희수 : 그래? 재미있겠다.

(교사는 연구자의 암묵적인 동의 하에 스크랩을 자르기로 했다.)

승희 : 꽃은 꽃이랑 놓고, 이거는 새랑 호랑이가 나오니까 이쪽에다 놓자.

승철, 희수 : 그래. (식물문양과 동물문양을 복사해놓은 자른집전통문양 이미지를 잘라서 아이들은 종류별로 나누어 책상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다.)

남규 : 이 그림은 어디에 놓지?

승희 : 어, 이건 기하학 문양이니까 여기 이쪽에다 놓아야 해.

(기하학 문양 그룹에 가져다 놓는다.)

승용 : 그런 이거? (길상문양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민주 : 이거는 어..... (민주가 구름문양을 가리키며 말한다.)

희수 : 응, 그건 자연 아니야? 이쪽에 놓아야 돼.

승철 : 야, 이거 여기야. (승철이는 철면이가 기하학 문양에 구름문양을 가져다 놓으려 하자 철면이가 가지고 있던 구름문양을 자연 상징 문양 그룹에 갖다 놓는다.)

(12월16일 화요일)

Rogoff (1990)는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더욱 숙련된 동료와 문화적으로 구성된 활동을 함으로써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학습과정의 중심이라고 말한다. 위의 사례는 유아가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양의 종류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승희는 특별히 기하학 문양에 관심을 보였고 종류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분류의 개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응용해서 문양을 나누는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유아들은 교사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며 문양의 종류를 구별하는 활동을 흥미 있게 지속해 나갔다. 유아들은 식물문양과 동물 문양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문양이라 스스로없이 구분을 하였으나 기하학 문양과 자연 상징 문양에서의 구분은 쉽게 하지 못하였다. 이렇듯 자발적 참여로 인해서 문양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게 된 유아들은, 전통문양을 활용한 미술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유아들은 사물의 형태를 인식하고 구별할 때, 자신이 잘 아는 것과 관련된 분류 개념을 가지고 구별을 했다. 다음은 희수가 산 모양을 한 자연 상징 문양과 기하학 문양의 공통점을 발견한 것을 보고 승희가 다른 의견을 말하는 과정을 담은 사례이다.

민주 : 이걸 무슨 문양이야? 어제 나왔던 거 아니야?

(자연 상징 문양인 산을 보고 기하학 문양이라고 말하며.)

승희 : 아니야. (당호하게 말한다.)

희수 : 그때 나왔던 거랑 비슷해, 다 각으로 되어 있잖아.

(기하학 문양을 말하며.)

(아이들은 문양 자른집을 넘기며 기하학 문양과 자연 상징 문양을 번갈아가며 비교 해본다.)

승희 : 이거 봐, 특리지? 이거는 계속 똑같은데 이거 아니잖아.

(승희는 기하학 문양의 반복적인 패턴을 얘기 한다.)

민주 : 어? 좀 다르네?

윤선 : 여긴 이런데, 여긴 이렇게 되어 있다.

(기하학 문양이 대칭인 것을 가리키며.)

희수 : 진짜네.

민주 : 선생님 이걸 뭐예요? 그때 한 거(기하학 문양) 아니예요?

(1월 6일 화요일)

희수는 자연 상징 문양에서 산의 모양이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각이라는 표현을 써서 기하학 문양과 자연 상징 문양의 차이를 구분 지으려 했다. 반면에 승희는 산 모양의 자연 상징 문양과 기하학 문양의 다른 점을 반복과 통일성에서 찾았으며, 윤선은 자연 상징 문양과 기하학 문양의 차이점을 대칭과 비대칭에서 찾고 있다. 이는 유아들

이 외각의 형태를 인식하고 구별하는 데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한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잘 아는 지식을 다른 유아들과 서로 나누고 그들의 지식을 함께 배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유아가 직접적인 성인의 안내를 받지 않고도 집단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함으로써 지식을 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 Inagaki(1992)의 의견과도 일치하는 사례이다.

다음은 기하학 문양을 보며 철민이가 초컬릿에 비유를 하자 다른 유아들이 문양의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례이다.

기하학문양은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어 유아들은 반복되는 선과 형태를 발견하는 분석력과 관찰력이 향상되었다. 조형성에는 선과 공간, 대칭, 구도 등이 있는데, 유아들은 전통문양의 탐색을 통해 구체적인 형태나 형상을 파악하고 조형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점, 선, 형, 색 등을 통해서 조형 원리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철민 : 저건 (사각문양의 기하학 문양을 보며) 초컬릿 같다.

네모난 초컬릿,

승희 : 동그란 초컬릿도 있어.

승용 : 초콜릿도 문양이냐?

남규 : 그런, 초컬릿 안에 있는 것도 문양이지.

희수 : 체크 처럼 구멍 뚫려 있는 것도 문양이겠네. 나 아침에 우유랑 먹었는데(손가락 두개를 이용해 체크 모양을 흉내 낸다.)

(12월 26일 금요일)

유아들은 문양이 사물에서 나타나는 대칭형, 나열형의 표현 등과 유사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로 의견을 나눔으로서 자연스럽게 이해했다. 전통

문양은 옛날에만 사용되어지고 발전하지 않고 변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생각하던 유아들은 현대적 사물에서도 변화된 모습들로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초컬릿이나 시리얼의 문양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은 사물에도 문양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더욱 친숙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2. 만날수록 익숙해지는 문양 : 새 친구와 친해지는 과정

서로를 알게 된 친구는 만나서 같이 놀고 또,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 내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진다.

1) 문양과 놀자!

놀이는 전통문양이라는 상징적 기호에 의해 표현된 미술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유아의 내적 표상을 이해할 수 있는 기호적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유아들의 주관적인 심상을 서로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 공동체 안에서 상징이 부여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했다.

김영희(1995)는 유아에게 있어서 표현은 대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재료에 의존하여 자신의 이미지와 느낌을 새로운 형태로 변화시키고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문양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일련의 미술활동 과정들은 전통미를 발견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활동이다.

다음은 유아들이 문양에 대해 느끼는 점을 이야기 하는 사례이다.

승용 : 학이요. 하얀 학

철민 : 야, 저건 호랑이다 호랑이 ~

윤선 : 이건 용이다.

승용 : 용이 꼭 춤을 추고 있는 거 같아 (몸을 흔들며)

승철 : 착한 용인 가바

철민 : 아냐. 용은 불도 내뿜~하악 (입에서 불을 뿜는 듯한 행동을 하며)

희수 : 우리나라 용은 착해서 인굽넌 뿜에도 그려져 있는 거야.
 인굽넌 지켜 줘려고

윤선 : 그런데. 영하 뵈는데 거기서 용이 사람들 딱 갇아갔어.

승용 : 용이랑 호랑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철민 : 용이 더 세다. 하악~(불을 뿜는 듯한 행동을 하며)

남규 : 호랑이가 이기지.

승철 : 입에 구슬뭍고 있다. 하하.(웃으며)

승희 : 음 ~힘이 세서요.

철민 : 하늘로 날아가려고 해서 그대. 하늘나라
 (손으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행동을 한다.)

민주 : 그런 거북이는?

철민 : 거북이는 느린데.~

승용 : 음~ 거북이는 물에서 살고 땅에서도 사는데.

남규 : 거북이는 아주 오래 살아.

승철 : 이건 도깨비요. (귀면문양을 가리킨다.)

승희 : 무섭다.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윤선 : 선생님 그 그림 저도 주세요.
 저도 밖에 귀신 나뭇까 바 무서워요.(양손을 어깨에 바짝 갈다 붙인다.)

(12월 19일 금요일)

승용이는 용 문양을 보며 용의 구부러진 몸의 형태에 대해, 용이 춤을

추고 있다는 신체적 표현을 했고, 희수는 우리나라에서의 용의 상징에 대해 임금님을 지켜준다는 언어적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남규는 거북이는 아주 오래 산다고 말을 하며 거북이가 장수를 상징한다는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

표현은 유아들로 하여금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기르고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게 하는 활동이다. 유아들은 자신의 머리 속에 형성된 표상들을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내기 시작한다.

다음은 윤선이가 자신이 표현한 작품을 설명하는 과정을 담은 사례이다.

교사가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고 하자 윤선이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다. 유아들이 자신의 창작품의 의도를 다른 유아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는지 살펴 볼 수 있었다. J. Hospers(1995)는 표현이 창작활동의 과정을 뜻하며 감상자의 측면과 예술작품이 감상자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환기의 뜻과 예술가의 의도가 감상자에게 전달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꽃문양을 그린 윤선이는 각자의 꽃문양에 다른 색으로 표현하며 자신의 작품에 ‘가족’이라는 의미를 부여 하였다.

승희 : 꽃문양이 예쁘다. (윤선이의 그림을 가리키며)

윤선: 이건 우리 가족이에요. 아빠 꽃, 언니 꽃, 동생 꽃, 내 꽃.

(꽃 그림을 손가락으로 하나씩 가리키면서)

윤선 : 아빠는 파랑색으로 크게 했고요. 언니는 빨강색으로 동그랗게요.

승용 : 왜? 아빠는 파랑색이야?

승철 : 바보. 빨강은 여자 색이야. 파랑은 남자색이고.

희수 : 언니는 빨간 입술 바르니까 빨간색이지.

윤선 : 나는 분홍색으로 언니 꽃보다 작게 했어요.

수면이는 노랑색으로 제일 작아요.

(1월 15일 목요일)

윤선이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아빠와 엄마라는 것을 색과 형태를 통해 표현했으며, 교사와 친구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윤선이가 자신의 그림에 부여한 상징은 보편적인 의미이기는 하지만 기린반 유아들은 윤선이가 그린 꽃의 문양이 가족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아동은 4세에서 8세 사이에 상징성이 강한 표현을 많이 하며 점차 사실적인 표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다. 모든 대상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의 상징을 만들며 어떤 표현에서든 그 상징을 반복하여 표현한다. 또한 아동의 미술표현에는 그들의 생각이나 느낌, 개념, 지각, 정서 등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 나이의 관심과 견해, 생각 등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렇듯 위 사례는 유아의 표상의 표출 형태를 기호적 기능(semiotic function)이라 한 Piaget의 관점과 일치한다.

다음은 희수가 구름문양에 대한 자신만의 은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사례이다. 자연 상징에서는 은유를 발견한 유아는 비유할 대상에 은유적인 표현을 할 수 있으므로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이 새롭게 계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희수 : 저건 할아버지 지팡이 같아. (구름문양을 가리키며)

배추도사에 나오는 지팡이

승희 : 지팡이가 누워있어? 서 있지.

윤선 : 난 구름 같은데. (하늘을 손으로 가리킨다.)

연주 : 지팡이는 뽕죽해.

승철: 구름으로 만든 지팡이. 배추도사가 가지고 다니는 거.

(일어나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흉내를 낸다.)

(1월 8일 목요일)

희수가 구름문양을 보며 지팡이라고 말하자, 승희와 윤선은 다른 의견을 말했다. 승희와 윤선은 현실 속에서 문양을 찾아내려 했고, 희수는 상징으로 비유했다. 같은 문양이라도 보는 유아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듯이 하나의 문양을 가지고 유아들은 제각각 다양한 상상과 반응을 보였다.

유아들은 문양의 특징을 탐색하면서 미술활동과 관련지어 활동을 하였다. 다음은 승용이와 민주가 용 문양 보고 그리기를 통해 문양을 자세히 살펴 보고 용 문양의 특징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승용 : 난, 용은 잘 못 그리는데.

민주 : 영국 그리고 뿔 길게 그리면 되지.

승용 : 이렇게? (민주를 쳐다보며)

민주 : 날개도 그려봐~용은 날아다니잖아. (손으로 날개 짓 흉내를 내며)

희수 : 동물원에서 본 호랑이는 무서웠는데, 이건 안 무섭다.

(문양 집에 있는 그림을 가리키며)

윤선 : 맞아. 착한 호랑이를 그렸나 봐. (동의를 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승철 : 나도 호랑이 그려야겠다.

철민 : 야. 거북이도 있어. 나 거북이 그려야지.

희수 : 거북이랑 토끼이야기 있잖아. 거북이 위에 토끼도 그려.

철민 : 싫어. 거북이만 그릴거야.

(12월 23일 화요일)

승용이가 자신이 용을 그리지 못하고 망설이자 민주가 옆에서 용의 특징

을 잡아주었다. 위의 사례는 승용이가 민주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양의 종류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Rogoff (1990)와 Inagaki(1992)의 의견과도 일치한다.

강영희(1990)는 표현의 기호체계는 개성과 마주칠 때 기존의 가치체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체계가 수립되며 이것은 표출되지 않는 인간내부의 감정이 표현에 의해 새롭게 계발되고 형성되는 작업이라고 했다. 희수가 토끼와 거북을 함께 그리라고 하는 것과 철민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거북 문양만을 그리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자신의 새로운 가치 체계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강영희(1990)의 의견을 재확인 시키는 사례이다.

대부분의 유아들이 전통문양에 대해 경험하지 못해서인지 새로운 미술에 대해 관심과 호기심을 나타내었다. 호랑이 문양이 웃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유아들은 하나의 사물에서도 다양한 것을 접할 수 있다는 것에 신기해하였으며 탐색을 통해 특징, 다양한 모양, 다양한 색깔 등에 대해 흥미를 가졌다.

2) 문양과 새로운 놀이

문양과 새로운 놀이는 유아들이 전통문양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전통미학을 느끼며 전통문양의 재창조를 통해 이를 현대에 맞게 응용하는 과정이다. 창의적 문양 만들기는 유아들이 스스로 자기만의 문양을 만드는 새로운 놀이로 전통문양에 대한 유아 각각의 생각이 자신의 디자인에 표출될 수 있다.

Amabile(1998)는 아이들의 창의성은 어느 영역에서든지 영역에서의 기

술 (skill), 창의적인 활동과 사고기술(creative working & thinking skill), 그리고 내적 동기유발(intrinsic motivation)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유아들은 새로운 놀이를 통해 재료를 탐색하고 활용하면서 이루어지는 기술과 창의적인 표현방법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자유로운 표현력이 증가하면서 색채 감각이 자극되어 미의식을 표현할 수 있었다.

다음은 16절지 사이즈의 한지 위에 자신만의 느낌을 표현한 작품을 서로 감상하며 이야기 하면서 독창성, 유창성, 재구성을 경험한 사례이다.

승희 : 꽃 모양을 분홍색한지를 붙여서 만들었어.

윤선 : 예! 예쁘다.

승용 : 난 포도를 보라색한지로 만들었어. 그런데 동그랗게 안됐어.

(쓱스러운 웃음을 짓는다.)

승철 : 난 연꽃을 했어. 가운데는 노란색으로 하고.

-----중략-----

윤선 : 하늘이 파란니깐 하늘을 날다 보면 파란 물이 들어.

(윤선이는 학을 파란색으로 그리며 칠하기 시작했다.)

(1월 27일 화요일)

파란 학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윤선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파랑 색으로 칠하면서 상상을 하고 색을 스스로 구성하여 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흥미를 느꼈다. 유아가 색에 의미를 부여하고 확대를 한다는 것은, 유아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유아만의 독창적인 색깔로 부여함을 알 수 있었다.

유아들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형태를 평면표현에서나 입체표현에서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윤선이는 중요하게 여기는 형태를 크게 하거나 색칠을 강렬하게 함으로써 과장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윤선이가 중요하

게 여기는 대상이나 생각을 먼저 그렸기 때문이다.

다음은 승희가 주말에 부모님과 같이 수원 팔달동에 있는 화성 행궁을 둘러보고 온 이야기를 들려준 후 일어난 유아들의 반응이다.

윤선이는 교사에게 유아들이 직접 만든 꽃문양으로 교실 꾸미기를 하자라는 제안을 했다. 윤선이의 제안에 따라서 아이들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각자의 위치와 역할을 분담하여 교실 꾸미기를 진행했다.

승희 : 장금이 촬영하는 데서 본 문에도요, 태극문양 있었어요.

(동그랗게 손가락으로 표시하며)

철민 : 정말? 어떻게?

승희 : 문 가운데 크게 그려져 있었어. 그래서 문 옆면 가운데로 적 벌어진다.

(두 손을 벌리며)

승용 : 나도 봤는데. 대게 멋있었어.

승희 : 그리고 방 있는데 지붕 있는 데고, 꽃문양이랑 기하학 문양이랑 막 있었어.

민주 : 맞아. 나도 저 번에 수원성 가서 그린 그리기 하는데 가서 봤었는데.

윤선 : 우리 집에도 그렇게 그리면 멋있을 것 같아. 우리 교실에다 가 꾸며보자

민주 : 맞아 우리 그린 거 많잖아.

승희 : 그대 선생님한테 물어보자.

윤선 : 꽃문양으로 교실 꾸미면 예뻐 거 같아.

윤선 : 꽃문양 한 거 어디에다 꾸릴까?

희수 : 교실 창문에 붙이자.

승철 : 그대 나랑 같이 하자.

희수 : 그대. (승철이랑 희수가 교실 창문 쪽으로 걸어간다.)

승철 : 뚝이 있어야겠어.

철면 : 짜잔~ (뚝을 내림)

승희 : 꽃문양 한거 우리 집 냉장고에 붙였으면 좋겠다.

윤선 : 맞아~우리 집 냉장고에도

민주 : 난 꽃가게에 있었으면 꽃집에. 꽃바구니.

승용 : 우리 집 접시에

승철 : 내 책상 서랍.

(1월 13일 화요일)

승희의 화성행궁에 간 체험을 들은 승용과 민주도 자신들의 경험을 기억해 냈다. 직접 경험해 본 유아들의 대화를 통해 경험을 해보지 못한 유아들도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

교실을 꾸며보자는 윤선의 제안대로 유아들이 작품을 꾸미고 교실에 붙이는 공동작업을 진행하였는데, 공동작업의 분담과 역할을 경험한 유아들은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체험할 수 있었다.

서울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1994)에 의하면 미술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만든 작품을 가지고 교실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유아들의 미적 감수성을 발달시킨다고 한다. 자신의 주변을 질서 있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서 기본적인 미적 안목이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아들은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서로 조언하고 협력하면서 자신의 문양을 새롭게 응용해서 표현했다. 전통문양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심미성을 발견한 유아들은 이를 응용하여 자신의 문양을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반응은 더욱 빈번해졌을 뿐 아니라 유치원과 집에서까지 응용하였다.

위의 사례들은 Inagaki(1992)가 집단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함으로써 지식을 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 의견과 일치한다.

다음은 희수가 여러 가지 문양집에서 각자 문양을 찾아서 오려 붙이기를 하며 이야기를 꾸미고 있다.

희수 : (착 문양을 다 붙이고 다른 문양을 찾고 있다.)여기다 꽃문양 붙여야지~

승철 : 왜, 두 개씩 이야?

희수 : (십장생그림을 가리키며) 한 개만 있으면 이상해~

민주 : 한개만 있으면 왜 이상해?

희수 : 여러 개가 있어야 행복해 보이지~

철민 : 그림, 이건 여자 착이고 이건 남자 착이네! (희수의 그림을 가리키며)

(12월 23일 화요일)

희수는 문양 붙이기를 통해 하나가 아닌 두 개를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유아들의 표현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상상한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유아는 주관적 심상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느끼고 경험한 바를 창의적으로 표현하게 되고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표현은 자신의 새로운 가치 체계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강영희(1990)의 의견과 일치한다.

3. 흠어지는 문양들 : 친구와의 갈등

친구 관계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 친하게 지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의견이 충돌되어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1)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

전통문양 및 한지를 활용한 실제 수업을 통해 유아들의 창의성을 자극하여 독창적인 표현을 유도할 수 있었다. 또, 유아들에게 있어 자유로운 표현은 상상력을 풍부하게 발휘 할 수 있게 도와주어 자신만의 개성을 독특하게 표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었다. 유아들의 자유로운 상상과 개성은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다른 유아의 작품을 감상한 후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며 자신이 느꼈던 것과 작품 의도의 차이점을 비교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사려 깊은 태도로 발전되었고, 타인의 의견을 배려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서로의 다른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였을 때 생기는 갈등도 있었다.

다음은 철민이의 작품을 보던 승용이가 철민이의 물고기 그림을 새라고 우기며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하는 사례이다.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지만 승용이의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철민이의 의견을 수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갈등이 증폭되지는 않았다.

철민이는 승용이에게 자신의 그림을 가져가 다시 설명을 한다.

철민 : 이것봐. 물고기야. (물고기 그림을 보여주며)

승용 : 아니야. 새야.

철민 : 색깔도 물고기고 모양도 물고기인데? (물고기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승용 : 지느러미가 없잖아.

철민 : 이게 지느러미야.

승용 : 날개 같은데?

철민 : 새 날개는 길지만 물고기 지느러미는 둥그렇잖아.

승용 : (말이 없이 철민이를 바라보며).

(12월 19일 금요일)

승용이는 철민이가 그린 물고기 문양을 보고 새라고 말을 하며 자신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대한 논거를 증명해 보였다. 승용이가 물고기의 지느러미를 지적하자 철민이는 자신이 변형해서 표현한 물고기의 지느러미와 꼬리의 형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었다. 이는 철민이가 물고기 문양을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서툴지만 사물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Young(1950)은 동일한 사물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인식되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승용이와 철민이도 같은 문양을 보았지만 서로가 느끼는 반응이 달랐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사례는 유아들이 완성된 그림을 보고 서로 이야기 해보기를 하는 장면이다. 자신만의 그림에 상징을 부여하는 승용이의 언어적 표현 방법이 좀 더 구체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승용이의 그림을 본 유아들이 서로의 의견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의견을 중재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논의를 가진 기린반 유아들이 어떻게 동의와 합의를 이루어 내는지 살펴 볼 수 있었다.

승용 : 이걸, 꼬끼리 문양이야.

연주 : 왜 그렇게 그렸어? 꼬끼리 안 같아.

승용 : 꼬끼리는 썩썩하고 커서 이렇게 그렸어.

철민 : 에이~꼬끼리가 아니라 꼭 돼지 같다.

남규 : 맞아 맞아.

승용 : 그걸 꼬끼리가 돼지지 낯싹하냐? (배를 내밀며)

윤선 : 그걸, 돼지 꼬끼리라고 하면 돼지?

윤선이 승용과 철민을 중재하며 말한다.

철민 : 그걸, 돼지 꼬끼리라고 불러도 괜찮아?

승용 : 그래, 좋아. (곰곰이 생각한 끝에...)

철현 : 히히 이젠 돼지 꼬끼리다.

(12월 23일 화요일)

승용이는 자신이 그린 꼬끼리의 문양을 유아들에게 자세히 설명했고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다른 유아들에게 설명하고 보여주었다.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민주가 승용이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고 갈등이 증폭 되려고 하자 윤선이가 둘의 의견을 중재를 해주었다. 윤선이는 서로 다른 의견 조율을 위해 절충안을 찾으려 했고 승용이와 민주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아내었다. 다른 유아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윤선이의 제안을 인정을 해주자 민주나 승용이도 마음에 들어 했다. 이렇게, 유아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다른 유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른 유아의 생각을 수용하기도 하며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또한, 삼자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도출된 해결 방안을 최선으로 선택하여 수용하기도 했다. 이는 유아의 또래 집단에 있어서도 규칙이나 동의, 의견 조율과 합의 등 사회성을 띄고 그들의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 사례는 우리 조상들이 전통문양을 만들면서 문양에 붙인 상징성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 하고 있는 장면이다. 승철이가 집에 있는 거북이를 예로 들어 이야기를 시작하자 승희가 네 잎 클로버의 상징성을 얘기 하였고, 그때 윤선이가 클로버의 상징성을 문양과 연결하여 교사에게 질문을 하였다.

승철 : 정말 거북이는 오래 살아. 우리 집에 있는 거북이도 나보다 나이가

많데.

철편 : 우리 할머니네 강아지도 나보다 나이가 많다고 했어! 메롱~

(혀를 내린다.)

승희 : 선생님. 네 잎 클로버는 행운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저 번에 우리언니
랑 네 잎 클로버 찾으러 다녔어요.

윤선 : 선생님, 그럽요. 네 잎 클로버는 행운이고 박쥐문양도 행복이라면
그거랑 같은 거예요?

(12월 23일 화요일)

윤선의 질문은 상징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상징은 추상적인 사물이나 관념 또는 사상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것으로 유아들은 전통문양의 상징을 통해 옛 조상들의 문화를 엿볼 수 있다는 것에 호기심을 보였다. 상징이라는 단어는 유아에게는 생소한 단어였으나 각 전통문양에 담겨진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안에 담겨있는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 위의 사례를 통해 유아들은 문양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문양이 갖는 상징의 의미가 문화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옛 문양과 현대적인 문양

철민이가 스파이더 맨 그림이 그려져 있는 필통을 보고 거미줄에 연상되는 문양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물어보자 남규는 거미줄의 반복되는 규칙을 보고 기하학 문양이라고 말한 반면, 승철이는 전통문양이 아니라고 말했다. 다음은 남규와 승철이의 서로 다른 내용의 주제를 갖고 의견 충돌을 일

으키는 사례이다.

철민 : 거미 문양은 없나? 스파이더 맨은 거미줄 파악 하는데.

(손을 짝 펼치며 스파이더 맨 흉내를 낸다.)

남규 : 야. 이거 기하학 문양이다. (스파이더 맨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다.)

승철 : 이거 전통문양 아니야. (영국을 남규에게 가까이 가며)

남규 : 아니야. 기하학 문양 맞아. (강조하듯 더 큰 목소리로.)

승철 : 으이그, 저게 전통문양이야?

희수 : 아니야 저건 우리나라 거 아니야. (고개를 저으며)

(1월 20일 화요일)

남규는 기하학 문양을 반복되는 규칙으로 보았고 승철이는 현대에서 쓰이고 있는 문양과 우리나라의 전통문양의 차이를 구분 지으려 했다. 즉, 남규는 공통적인 요소를 종합하여 얻은 유형으로 기하학 문양을 인식한 반면, 승철이는 규칙을 보고도 개념으로만 인식하여 전통으로 국한시키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다. 서로 다른 입장의 차이와 표현이 달랐을 뿐, 남규나 승철 누구도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서로간의 갈등이 생기게 된 원인이 되었다.

희수가 교실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철민이는 새로운 걸 발견한 듯이 희수를 부른다. 다음은 철민이가 희수의 옷을 보고 우리나라의 전통문양이라고 말하고 희수는 아니라고 말하는 서로의 사고가 다른 갈등의 사례이다.

철민 : 희수야. 희수야 (희수를 부르며 희수의 옷을 짚아당긴다.)

희수 : 왜~ (뒤를 돌아보며)

철민 : 니 옷에 있는 거 전통문양이다.(기쁜 듯 웃으며)

희수 : 아니야. 이건 우리 아빠가 싱가포르에서 사온거야.

철민 : (다시 자세히 희수의 옷을 보며) 기하학 문양 같은데.

윤선 : 나도 저거 비슷한 거 있는데. 아닌 거 같아 (전통문양이 아니라는 뜻
고개를 저으며)

(1월 27일 화요일)

철민이가 희수의 옷에 있는 문양에 관심을 가지고 전통문양임을 확인할 때 희수나 윤선은 그 문양이 우리의 전통문양이 아님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 사례는 유아들이 전통문양에 관해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되자 전통문양과 현대에서 사용되는 문양의 차이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한다. 대부분의 유아들은 반복적이고 추상적인 문양을 기하학문양의 특징으로 보았다. 이러한 구분은 현대에서 사용하는 기하학 문양과 전통적인 기하학 문양의 차이를 구별하는데 갈등을 겪는다. 유아들은 기하학 문양을 보고 전통문양과 현대 문양의 차이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다른 의견을 교환한다.

4. 자꾸 생각나는 문양 : 친구가 그리워짐

헤어져 있다보면 가끔씩 친구가 그리워지기도 한다. 길을 걷다가, 때론 맛있는 것을 먹다가, 친구로 연상되는 사물을 발견하고는 놀라게 된다.

1) 길을 걷다 마주친 문양

유아들이 문양 탐색을 통해, 문양과 관련된 다른 사물이나 사실들을 전통

문화나 현 생활에서 이끌어 들여 연상시킨 후 나타난 반응들을 살펴 본 것이다. 전통문양의 연상은 하나의 관념이 다른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으로서, 전통문양과 사물과의 관계를 연결짓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허균(1996)은 옛사람들이 기억력을 활용하여 사물의 이미지를 기억해냄으로써 실제 사물들이 눈앞에 없는데도 마치 그것이 자신의 앞에 있는 듯이 다루는 표상방법을 개발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유아들 역시 사전 기억을 연상하여 생활 속에서 사물과 연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역사적 사실 지식을 다른 사실과 연계하기, 관계 짓기, 전체적으로 이해하기와 같이 서로 관련성을 맺을 수 있는 심층적 학습(deep learning)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한 Svingby(1993)의 의견과 일치하는 사례이다.

다음은 민주가 집에서 가져온 모양이 있는 과자를 책상 위에 꺼내놓고 과자에서 문양을 발견해 내는 사례이다.

승희 : 어, 이거 기하학문양 같다.

철현 : 그렇다. (과자의 앞뒤를 살펴보며 먹는다.)

승용 : 이것 뽀 뽀! (과자를 책상 위에 나열하며 길게 모양을 만든다.)

승철 : 멋있다.

민주 : 선생님 어제요. 우리 집 앞에 보니까 땅에요.

기하학 문양 같은 게 있었어요. (만족해하는 듯한 눈빛으로)

윤선 : 우리 집에요. 아빠 넥타이에든 네모난 기하학 문양 있었어요.

희수 : 난 어제 빨래 학원 가는데 육교에 꽃문양 있는 거 봤어요.

(손을 둥그렇게 하며)

승용 : 기하학 문양으로 이렇게 붙이니깐 탱 된다. (과자를 여러 개 연결하는 행동)

철현 : 뽀 ~멋있다. (아이들 다가와 구경한다.)

민주 : 야. 이거 꽃 케익이야.

(자기 자리호 가서 앉으며 꽃문양을 여러 개 모아 케익을 만든다.)

윤선 : 정작이네 예쁘다.

(2월 13일 금요일)

기하학문양은 점과 선으로 이루어지고 사각문양, 원 문양, 타원문양, 문살문양, 삼각문양이 있으며, 대표적인 기하학 문양에는 태극문양과 길상도 문양이 있다. 유아들은 기하학 문양에서 나타나는 도형의 형태에 관심을 가졌는데, 기하학 문양을 통해서 통일성과 도형 및 공간의 성질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통일성은 사물의 규칙이나 패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유아들은 분류, 변별력에 반응을 보여 일상생활 속에서 쓰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양을 기하학 문양에 연결시킬 수 있었다.

승철 : 이 문양 특이하다. 어디서 봤는데? 할머니 베개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문양을 왜 만들었지?

철현 : 금세, 목나.

민주 : 예쁘다고.

희수 : 아무것도 없으면 이상하잖아.

윤선 : 맞아 (고개를 끄덕이며)

남규 : 이 문양들이 어디에 썼지?

승희 : 옷, 내 옷에 모양 있잖아. (자기 옷의 꽃문양을 가리킨다.)

철현 : 이북에도 있잖아!

승희 : 책가방에도 있어. (가방을 살펴본다.)

(12월16일 화요일)

승철이는 문양을 사물이나 기물에 왜 사용했는지 궁금해 했다. '이 문양을 왜 만들었지?' 라는 승철이의 질문에 민주는 문양을 보고 예쁘기 때문이

라고 했고, 희수는 아무것도 없으면 이상하다고 말했다.

민주나 희수의 의견이 승철이와 다른 유아들의 근본적인 의구심을 해소하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적극적인 의견들은 전통미와 친숙해 지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문양이 기물에 들어간 이유나 의미가 있다고 여기며 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전통문양에 대해서 추상적인 의미만을 형성하고 있었던 활동 초기에는 소극적인 반응이 이루어졌지만,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해가는 활동 후기에는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다.

수업이 진행 될수록 유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전통문양을 찾는 활동이 점점 빈번해 졌다. 유아들은 수원성문에 새겨진 문양, 한복의 문양 및 옛 가옥의 창살 등 전통적인 사물뿐만 아니라 벽돌이나 가로등, 표지판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전통문양이 들어간 목재가구와 한지로 만든 공예품은 유아가 살고 있는 현대에서 잘 볼 수 없는 모습이다. 교사는 유아들에게 사진과 견학을 통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름을 이야기 했으며, 자연스럽게 우리의 역사와 문화, 풍습을 유아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 할 수 있었다. 박물관 견학은 다양한 사고로 전통문양과 한지를 감상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 전통문화에 대한 친근감을 느낄 수 있었다. Svingby(1993)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가정과 사회에서도 활용되고 이것이 실생활 속에서 나타날 때 의미 있는 학습이며 가치 있는 변화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전통문양 학습의 좋은 예이다.

경기도 박물관에 가는 버스 안에서 아이들은 창 밖을 내다보며 버스정류장 벽에 전통문양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유아들은 생활 속에서 접하고 있었지만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거리의 벽이나 육교에 그려져 있는 전통

문양을 인식하였다. 유아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박물관 입구에 있는 커다란 종을 가리키며 그 안에서 전통문양을 스스로 찾아냈다.

남규 : 어 저거 전통문양이다. (봉황문양을 가리키며.)

민주 : 저 종에 태극문양 있다. 어, 다른 문양도 있어. 종에 문양 많다.

희수 : 선녀도 있어. 종위에는 용 있다. (종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박물관 입구에 커다란 종이 있었고 박물관 뒤편 야외전시장에는 민속놀이와 전통악기가 전시되어 있어 관람객이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승용 : 야, 이 북에도 있다. (용문양을 가리키며)

철민 : 승용아 이건, 용이지! (징을 매단 나무 장식을 가리키며)

윤선 : 그대, 용 문양도 있고, 태극문양도 있네. (어깨를 들썩인다.)

(1월 20일 화요일)

철민이는 용 문양이 종이나 북 뿐만 아니라 현대적으로 변형되어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해냈다. 철민의 발견으로 종과 북에도 용문양이 새겨져 있음을 다른 유아들도 함께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유아들은 조상들이 쓰던 다양한 물건들 안에 나타나 있는 봉황문양, 선녀문양을 발견할 수 있었고 간접적으로만 보아왔던 문양을 직접 보면서 그 문양들이 단순한 아름다움뿐 아니라 전통적 생활 배경을 지니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2) 문양과 친숙해지기

유아들은 전통미술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해 조금씩 친숙해졌다. 전통미술을 지키기 위해서 유아들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사항들을 되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었

다.

전통문양을 활용한 미술활동은 유아가 자신의 삶과 경험과의 관련 속에서 옛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다. 교사는 아동들이 나름대로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 자신들의 다양한 생각을 모을 수 있도록 조연자의 입장에서 지도하도록 하였다.

다음 사례는 승희와 철민이가 직접 입고 온 한복의 색과 모양을 관찰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다.

승용 : 한복은 생일날만 입고 오는 거 아니 예요?

희수 : 옛날에는 매일 입었대.

(철민이랑 승희가 입고 온 한복을 보고 한복에 있는 문양을 살펴보자.)

민주 : 승희 한복에는 꽃문양이 있어요.

윤선 : 그런데 옛날에도 승희 것처럼 예쁜 한복을 입었어요?

승철 : 여자 한복만 예쁘냐? 철민이 한복도 멋있어.

윤선 : 한복만 입은 게 아니라 모자도 썼다. (쓰게를 가리키며)

승철 : 어 남자들도 머리에 썼다. (두건을 가리키며)

승희 : 옷에도 모자에도 다 문양이 있어요.

윤선 : 정말이네. 치마에도 있네.

(2월 6일 금요일)

승희와 철민이가 입고 온 한복을 통해 유아들은 한복에 있는 전통문양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문양뿐 아니라 전통 의생활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다음은 궁 안에서와 양반들의 혼례식 때 입었던 전통결혼식사진을 보며 유아들이 나타내는 반응에 대한 사례이다.

승희 : 한복입고 결혼 하는 거 멋있다.

윤선 : 드레스보다 더 예쁘다.

승철 : 옛날에는 남자들 말 타고 결혼했다.

윤선 : 정말?

승철 : 나도 말 타고 결혼 할 거야~따 닥 따 닥 (말 타는 흉내를 내며)

민주 : 여자는 ?

승철 : 여자는 ~음 여자는 말 안타.

교사는 유아들에게 예전 결혼식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었다.

윤선 : 그런 지긋지긋 차 안 막혀서 좋았겠다. 저 번에 결혼식 보러 갔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힘들었었어. 휴.....(한숨을 쉬며)

(2월 3일 화요일)

유아들은 일반 한복과 결혼식 때 입는 한복의 차이를 알고 옛 조상들의 결혼문화를 알게 된 것에 흥미를 가졌다. 또, 한복을 탐색하면서 옛 조상들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게 되었는데, 유아들은 지금보다 예전의 여유로운 생활에 관심을 나타내었다. 윤선이의 차가 막혀서 힘들었다는 얘기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조상들의 전통 문화를 현재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은 한지를 이용해 옷을 만들고 전통문양으로 꾸미는 활동을 통해서 유아들이 스스로 옷을 만들어 보고 입어 보는 경험을 한 사례이다. 교사는 먼저 작은 한지를 나눠주고 유아들 각자가 한복을 그려보게 하고 난 후, 큰 한지에 한복을 다시 그리는 공동 작업을 진행했다.

승철 : 더 크게. 팔이 너무 작잖아.

승희 : 아니야 윤선이가 누워. 그거 대고 그리자.

아이들 : 그대 그대.

민주 : 너 움직이지마~

희수 : 내가 오른쪽 팔 그린다.

승희 : 다 그렸다. (웃으며 교사에게 달려가 보여준다.)

민주 : 다 그러면 오려야지.

승철 : 내가 오려래~.(민주의 가위를 빼앗으며)

민주 : 야, 조심해.

희수 : 풀로 붙이자. 풀.(풀을 가져오며)

승철 : 테이프를 붙여.

승용 : 엀! 멋있다.(다 붙여진 완성된 한복을 보고)

민주 : 나 먼저 입고 거울 볼래~(교실 벽에 있는 거울 쪽으로 가며)

승희 : 이 옷 누가 가져요? (교사를 쳐다보며)

민주 : 언따랑 아빠한테 보여줄래요~

희수 : 언태 너한테 가져가면. 같이 만든 거잖아.(입을 삐죽거리며)

(2월 6일 금요일)

의복을 만드는 방법을 모르는 유아들이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만드는 방법을 유추해 나가면서 협동과 역할 분담을 맡아 스스로 터득해 나갔다. 희수가 풀로 붙이자고 했을 때 승철이가 더 단단한 테이프를 선택한 것은 표현에 있어 재료의 선택도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복을 만들어 봄으로써 유아들은 재료를 변형시키는 표현활동을 하며 창의력과 흥미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미적 경험을 했다.

한복을 다 만든 후, 민주는 엄마 아빠에게 보여 준다고 하며 작품을 집으로 가져가려고 했다. 이때, 다른 유아들은 공동으로 만든 작품에 대해 성취욕을 갖는 반응을 나타내었다. 협동적으로 만든 한복을 민주가 가지려 하자 유아들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민주는 같이 만든 작품에 대해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협동 작업은 유아들에게는 표현과 감상적 직관과 미적 체험을 제공하였고, 연구자는 우리의 전통미술을 보는 눈과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등 유아들의 미적 지각능력에 대한 반응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과거의 전통적인 미의 바탕 위에서 현대적인 미의 관점을 확립하고, 미술을 통해서 그 시대의 생활감정과 미의식에 대한 사적 고찰을 하는데 의미가 있었다.

다음은 집에서 가져온 문양이 들어간 물건을 보여주며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사례이다. 자주 사용하지 않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통해 생활 속의 전통문양을 발견하고 인식하게 되었다.

희수 : 난 젓가락이랑 부채 가져왔어.(부채질을 하며)

승철 : 왜 젓가락에도 문양이 있네.

철민 : 부채 시원하겠다. ~

민주 : 이건 고무신이요.(엄마의 한쪽 고무신을 신어본다.)

엄마가 한복 입을 때만 신는 거였어요.

윤선 : 전 컵 가져 왔어.(컵을 번쩍 들며)

철민 : 태극기다.(컵안에 있는 태극문양을 보며)

윤선 : 아냐, 소고에도 있어.

희수 : 우리 재롱 잔치할 때 붓에도 있었잖아.

승철 : 방학 때 할머니 집에 있는 상에서 봤어요.

민주 : 이거 어제 장군이에 나왔던 거다. (노리개를 흔들며)

엄마가 결혼할 때 한 건데 한복에다가만 다는 거래요~

(2월 13일 금요일)

민주는 전통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에 참여를 하고 교사가 묻는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가지고 온 물건을 소개 할 때는 시간이 짧다고까지 했다.

유아는 일상 경험을 통해 이미 많은 사전 지식을 형성하고 있으며 결코 백지 상태로 수업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 유아의 사전 지식은 새로운 지식과 연계됨으로써 새로운 지식의 확장을 지지해 주기 때문에 사전 지식은 교수의 연속성(teaching sequence)을 안내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Dekkers & Thijs, 1988; Duit, 1997; Vosniadou & Brewer, 1987. 재인용)

옛 물건을 소개하고 서로 비교하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 활동은 더욱 재미있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아가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업 참여가 진지해지고 있다. 유아가 자신의 삶과의 경험 속에서 전통미와 옛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예시작품을 감상하며 우리나라의 전통에 대해 유아의 경험 속에서 이야기 거리를 찾고, 다양한 자료들을 간단히 비교하면서 유아들이 대화한 사례이다.

희수 : 한복은 앞쪽달룩 해서 무지개 같아~

윤선 : 맞아. 예뻐 ,

윤선 : 난 꽃 문양이랑 봉황문양이 예뻐 ~

민주 : 나도 꽃 문양이 제일 예뻐.

꽃 문양에선 향기가 느껴져요~ (꽃냄새를 맡는 시늉을 하며)

승용 : 용도 멋있어~ 이건 쌀 빠진 용이다. (짓궂게 웃으며)

철민 : 용 문양 있는 장난감 있으면 좋겠다.

승철 : 성도 .

희수 : 난 꽃 문양 있는 걸호~ 공주도 임금님도 있는 걸호

(2월 3일 화요일)

희수와 민주는 꽃문양을 보고 느낀 점을 '무지개 같다.' 와 '향기가 느껴진다.'는 말로 표현했다. 이렇듯 색다르게 반응한 유아의 사고는 자신들의 경험을 되살리며 자유롭게 사고하는 독창성과 유창성을 보여준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철민이 500원 짜리 동전을 꺼내 보이며 동전에서 문양을 발견했다. 다음은 현재 생활 속에서의 작은 관찰을 통해 전통문양과의 연계를 하는 사례이다.

철민 : 이거, 착 문양이다. 헤헤헤 (혀를 내밀며)

승용 : 어 정말이네! (철민의 동전을 가지고 오며)

민주 :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동전을 찾는다.) 나도 보자 (철민의 동전을 본다.)

남규 : 옛날 돈에는 구멍이 있다~!

승철 : 맞아, 실에 이렇게 해 가지고 다녔어

(엿전 꾸러미를 허리춤에 묶는 시늉을 한다.)

철민이는 의기양양해 하며 자신감이 생긴 것처럼 보였다.

(2월 13일 금요일)

처음 문양에 대해 어렵게 생각했던 유아들은 전통문양을 단순히 암기만 하기 보다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를 보였다. 유아들은 전통문양에 대해서 낯설고 어렵고 생소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나 문양이 단지 전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쉬운 것, 또는 친근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5. 한지와 문양, 친구가 되다 : 우정이 돈독해짐

한지와 문양을 활용한 미술활동으로 전통미를 발견하고 전통과 친해지는 과정이다.

1) 한지를 만나다.

우리의 전통한지는 한국의 자연과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우리의 생활 어디에서든지 찾아볼 수 있다. 유아들은 생활 속에서 숨어있는 전통미를 발견하면서 일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는 폭넓은 미적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한지의 제작공정을 감상하면서 유아들이 한지의 조형성을 발견하는 과정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다음 사례는 한지를 만드는 제작공정을 감상하면서 유아들이 나누는 대화이다.

윤선 : 한지 만드는 거 엄청 길다. (양손을 길게 벌리며)

철민 : 한지가 천년이나 산다고?

승철 : 그런 한지는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네~

희수 : 그래서 한지가 하얀색이 많구나.

민주 : 왜?

희수 : 할아버지는 하얀 색을 많이 입잖아. 머리도 하얗고.

(머리카락을 가리키며)

(1월15일 목요일)

유아들은 한지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한지 한 장이 만들어지기 위한 정성과 노력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한지가 오랫동안 보존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으며, 한지를 할아버지에 비유하며 한지를 친근하게 느꼈다. 유아들은 한지를 만드는 제작 공정을 통해서 선조들의 자연과 동화되는 삶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얇고 결이 고운 한지는 섬유를 갈지 않고 두드려서 종이를 만들며 긴 섬유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얇고 결이 고우며 독창성과 조형성을 지닌 종이이다. 다음은 유아들이 재료로서의 한지의 특성을 오감으로 탐색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살펴본 것이다.

희수 : 한지는 얇은 종이 알았는데 ~

철민 : 이것 바. 나뭇잎도 들어가 있다.

승용 : 이거 되게 두껍다. (닥지를 손으로 맛져보며) 책받침보다 두꺼워.

승희 : 딱딱하지는 않아. (닥지를 맛져보며) 책받침은 안 맛어져.

윤선 : 이 걸로는 옷도 맛들어 입겠다.

민주 : 이걸 못 접겠는데.

희수 : 그걸 그다음에 가워호 올리면 되지. 선생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1월13일 화요일)

닥지를 탐색해보던 승희는 닥지가 두껍기는 하지만 유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윤선은 옷을 만들어 입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또, 닥지에 나뭇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로인해서 더욱 친근하게 생각하였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조상들의 여유와 풍류를 느낄 수 있었다. 한지가 두껍고 질기며, 통기성과 보온성이 뛰어나고 흡수성이 많고 유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유아들은 조상들의 지혜와 전통문화의 우

수성을 새삼스레 느끼게 되었다.

다음은 한지를 탐색하는 과정 중에 유아들은 한지를 꼬아 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며 한지를 꼬아 줄다리기를 하는 사례이다. 유아들은 한지로 만들어진 물건들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한지의 질긴 성질을 알게 되었다.

희수: ㄸ~예쁘다. 어 이거 연필통이다.

(한지로 만들어진 문양이 있는 공예품사진을 보며)

철민: 이거 어디서 본거 같은데~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거랑 비슷하다.

(한지로 만든 다과 상자를 보며)

남규: 한지는 부드럽고 질겨.

승철: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한지로 줄다리기도 할 수 있데요.

(한지를 꼬는 행동을 하면서)

(한지 한 장으로는 안 되지말. 여러 장을 합치면 아주 단단하고 질겨진다고

말하자 철민이와 승용이가 한지를 꼬아보기 시작했다.)

철민: 우리도 꼬아 보자.

승용: 근데 힘들다. (8센티미터 정도로 한지를 여러 장 합쳐서 끈다.)

철민: 당겨봐~(승철이와 철민이가 두 손으로 당겨본다.)

승용: 정말 안 끊어지네?

철민: 대단해요~(엄지 손가락을 피면서 웃는다.)

(12월 23일 화요일)

한지의 섬유는 그 방향으로 찢으면 용이하게 찢을 수 있고 다른 방향으로 잘 찢어지지 않으며 인성이 강해 종이로 끈을 만들 수도 있다. 한지의 질긴 성질을 알게 된 철민이와 승철이는 한지를 여러 장 꼬아서 당겨보면서

줄다리기를 하였다.

다음은 유아들이 한지와 그 외 다른 종이를 만져보며 느낌을 말하는 사례이다.

남규 : 눈감고 만지니까 털 옷 같아. (닥지를 만지며)

윤선 : 따뜻해. (화선지를 만지며)

승용 : 이건 차가워 (색종이를 만지며)

승희 : 매끈해. 미끄러워~(포장지를 만지며)

-----중략-----

승용이는 한지와 그 외 다른 종이를 형광등에 비쳐보았다.

승용 : 어 손가락이 비친다.

철민 : 정말.

승희 : 색종이는 안 비치는데.

남규 : 포장지도. 포장지도 안 비쳐.

승철 : 한지는 비치니까 바깥이 잘 통하는 거다 그렇지? (교사를 쳐다보며)

(12월23일 화요일)

유아들은 각자 종이의 성질을 비교하며 틀린 점을 발견하며 전통 재료인 한지와 다른 종이의 재질감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었다. 한지 종류의 다양함은 얇고 부드러움과 질기고 물이 잘 스며드는 성질에 대한 다양한 촉감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다음 사례는 유아들이 색 한지를 오감으로 탐색하고 색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질문하며 다른 종이와 비교하는 과정이다.

남규 : 색한지도 연색을 했어~

철민 : 책에 나왔어.

승희 : (색 한지의 앞뒤를 만져보며) 한쪽은 반질반질 하고 한쪽은 거칠어.

민주 : 색깔이 예뻐.

승용 : 털이 있어.(색 한지 끝의 만져보며)
(아이들 웃으면서 만져본다.)

철민 : (색종이를 만져보며) 색종이는 미끈미끈해.

승용 : 앞이랑 뒤랑 똑같다.

승희 : 한지는 부드러운데도 있고 거친데도 있어.

철민 : 한지는 따뜻해.(한지를 뺨에 대본다.)

윤선 : 예뻐.

승용 : 한지에서 냄새난다.(한지를 코에 대고 쿵쿵 냄새를 맡는다.)

철민 : 어 정말 썩 냄새난다.

윤선 : 한지를 찢어볼까?

승용 : 이거 봐. 털이 있다.(가로로 찢어보며)

민주 : 야, 정말. 한지 찢으니까 털이 나와. (신기한 듯 쳐다보며)

윤선 : 손에 많이 묻어.

승희 : 한지에 털이 있어서 재미있어.

(12월 23일 화요일)

자연에서 얻은 색을 사용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화려하지 않으면서 윤기가 도는 미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색 한지는 독특한 풍치와 수수함으로 유아들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다주었다. 철민이가 한지를 얼굴 가까이 대고 살펴본 것은 그 사물에 대해 궁금한 점을 갖는 다는 것이며 관찰 및 탐색과정에서의 적극성을 보였다. 이러한 과정은 유아의 관찰력을 더욱 발전시키며, 흥미를 가지고 관찰하는 태도를 기르는데 도움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한지와 문양, 자연으로 떠난 여행

다음은 유아들이 사찰과 궁의 건축물인 문양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나라의 곡선의미를 알아내는 사례이다.

철현 : 우린 다 아파트에 사는데 ~

승철 : 할머니네 집도 저렇게 생겼어.

승희 : 그런데 저런데 집은 다 지붕이 이렇게 올라갔어.

(기와의 곡선을 흉내 내며~)

윤선 : 정말 우리 집이랑 어린이집이랑 다 네모난데~저게 더 예쁘다.

희수 : 멋있어. 파도 같아. (파도의 둥그런 모양을 흉내 내며)

민주 : 끝에 뭉고기 문양도 달려있다.

승용 : 나, 절에 갔었는데. 저 뭉고기에서 '딩' '딩' 소리도 나.

민주 : 우리 집에서 소리 나는 거 걸어 놔는데 누르면 소리 나는 거야.

승용 : 아니 저건 누르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면 소리 나는 거겠어.

희수 : 근데 예쁘다. 뭉고기가 나는 거 같아.

(교사는 뭉고기문양을 사찰에 왜 걸어 놓았는지, 왜 소리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12월 23일 화요일)

철민이가 아파트의 직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자 다른 유아들이 서로의 생각을 얘기하며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승희는 기와의 곡선의미를 발견하고 희수는 파도에 비유해서 나타냈다. 우리의 전통문양을 현대적 느낌의 직선보다는 곡선이라는 기본적인 특성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민주와 승용이 사찰의 처마에 매달려 있는 풍경을 화제로 얘기 나누고 있다. 민주는 풍경의 모습을 보고 뭉고기문양이 처마 끝에 달려 있다는 것

에 관심을 가졌다. 유아들은 전통문양의 심미성을 통해 아름다움을 살펴 찾는 안목을 키울 수 있었다.

다음은 생일을 맞은 승철이와 승희가 한복을 입고 어린이 집에 왔다. 유아들은 한복을 탐색하면서 한복에 새겨진 문양의 형태뿐만 아니라 한복의 곡선미를 발견하였다. 특히, 유아들은 한복의 소매가 큰 곡선인 것과 한복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호기심을 나타내었다.

승희 : 그런데 한복은 다 둥그래. 팔도 둥그래.

민주 : 어. 한복에 있는 문양도 둥그래~

철현 : 야, 둥그싼 것만 있냐? 네모난 것도 있지.

(2월 6일 금요일)

"한복에는 왜 주머니가 없어요?" 라는 희수의 질문에 교사는 농경문화의 특징이 의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한복에 주머니가 없는 대신 둥그런 소매가 주머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었다.

다음은 한복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전통문화를 발견하게 되는 사례이다.

승희 : 야, 이거 넣어봐. (연필을 가리키며)

희수 : 야, 그건 뽀쪽하잖아.

승철 : 그걸 어떻게 넣어, 다치잖아.

철현 : 아, 신기하다. (어깨를 들썩거리며)

윤선 : 나도.

승용 : 다른 거 넣어봐 .

승철 : 아이 불편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걸 넣어 가지고 다녔을까?

(2월 6일 금요일)

유아들은 한복을 직접 입어보는 체험을 하면서 한복의 특성과 현대의복과 다른 특성에 대해 호기심을 나타냈고, 한복을 관찰하고 탐색하면서 선조들의 생활 습관과 문화를 유추해내고 더욱 친근하게 느끼게 되었다. 특히, 대부분의 유아들은 한복을 명절에만 입는 특별한 의복으로서만 생각해 왔는데, 한복 만들기 조형 활동을 통해 전통이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은 창의적으로 문양을 만들어 한복에 어울리는 쓰게를 만들고 승철이가 두꺼운 닥지를 이용해 부채를 접어 만든 사례이다.

희수 : 머리에 쓰니까 귀까지 따뜻해. (한지를 만든 쓰게를 머리에 쓰며)

승용 :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거 쓰고 다녀서 좋았겠다.

철민 : 나도 써볼래. 으하하하하, 좋다. (허리에 손을 얹으며)

승철 : 난 부채다. 원래 양반들은 이렇게 부채도 들고 다녀.

(배를 내려고 걷는 시늉을 하며 한지를 접어 부채를 만들어 부친다.)

희수 : 나도 한번 줘봐.

승철 : 그냥 이렇게 접으면 돼. (한지를 접으며) 이거 너 가져.

(희수에게 부채를 접는 방법을 가르쳐주며 희수에게 부채를 만들어 준다.)

(2월3일 화요일)

유아들은 두꺼운 닥지로 부채를 직접 만들어 보며 한지의 성질을 알게 되었는데, 한지가 단단하기도 하지만 시원하고 보온성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부채를 만들어 옛 조상들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승철이는, 교사에게 옛 조상들의 생활상에 질문을 하는 등 많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다음은 유아들이 창살문양을 살펴보며 옛 조상들의 삶 속에서 한지가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 대화를 나누는 사례이다.

희수 : 한지는 창문에 붙이면 비쳐

윤선 : 아. 창호지? (창호지를 들어 보이며)

민주 : 밤에 불을 비춰야지, 비쳐.

승철 : 색종이는 안 비치는데.

철민 : 포장지도 안 비쳐.

 그런데 옛날에 결혼할 때, 문에 찢 밧라서 구멍 뚫고 보더나.

승용 : 어, 재미있겠다.

승희 : 구멍이 뚫렸으면 다시 붙이면 되나?

승용 : 다시 붙이지.

승희 : 창문에 유리는 깨지면 다시 못 붙여. 그치.

(12월 23일 화요일)

한지로 만든 실생활용품을 보며 대화하는 장면이다. 유아들은 감상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조상들의 생활상을 들여다보고 실생활에 응용된 문양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곡선을 이용한 건축물과 한복을 생각하며 유아들이 대화한 사례이다.

윤선 : 우리나라는 동그란 나라야~

민주 : 왜? 우리나라 길게 생겼어~지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손으로 지도모양을 그린다.)

윤선: 지붕도 이렇게 동그랗고 (손으로 지붕모양을 흉내내며).

한복도 이렇게 동그랗고 (팔을 벌려 한복의 동그간 선을 흉내내며)

승용: 어 댕다. 태극기도 동그래~

희수 : 태극문양도 동그랗게 두개이고.

철민 : 저 번에 박물관에서 본 종도 동그래.

(2월 13일 화요일)

윤선이가 우리나라에 대해 동그랗다고 표현을 했다. 승용과 희수, 철민 등도 윤선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며 그들이 각자 발견하는 태극문양, 종, 지붕 등의 문양들을 통해 전통적 고전미를 발견하였다. 우리나라의 건축과 의복의 문화를 보면 직선보다는 곡선이 많이 들어가 있음을 표현 한 말이다. 윤선의 발언에 승용과 희수는 태극문양의 예를 들어 태극문양의 곡선이 어우러짐을 말하고, 우리나라의 곡선미를 알게 되는 반응이다.

승용과 희수, 철민이도 윤선의 의견에 대해 동의했으며, 그들이 각자 발견한 전통문양들, 태극모양이나 종, 지붕 등 곡선의 어우러짐을 말하고 곡선미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이는 유아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전통문양의 다양성과 함께 기본적인 곡선을 발견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민족적 특성과 전통문양의 다양성과 함께 기본적인 곡선을 발견하게 되었다.

3) 한지와 친해지기

물감을 사용하여 한지에 물을 들이는 기법으로 순지에 실을 두세 군데 묶어 염색을 한다. 한지의 얇고 부드럽고 물이 잘 스며드는 성질을 이용해서 천을 대신해 염색을 하면 은은한 색이 나와 한지와 물감의 성질을 알게 되고 색의 변화와 조화를 이용하여 미적 경험을 한다.

다음은 순지를 이용해 염색을 하는 사례이다. 윤선이는 한지를 접고 물감을 이용해 염색을 하면서 한지가 물감의 색을 흡수하고 번지는 성질을 보며 꽃이 피는 장면과 비유해서 표현 하고 있다.

승철 : 야 꽃이 번진다.

철현 : 엄청 빨라, 빨라. (눈이 커지며 가까이 가서 살펴본다.)

윤선 : TV에서 본거 같아요.

윤선 : 작은 꽃이 확 펼쳐지는 거 있잖아요. (윤선이는 손가락으로 꽃 모양을 나타내며 교사에게 설명을 해주듯이 교사에게 다가온다.)

교사 : 음 ~꽃이 봉우리에서 활짝 펼쳐지는 거 말하는 거구나.

그건 카메라 아저씨가 하루 종일 꽃이 펼쳐지는 걸 찍는 거야.

승용 : 그거 나도 TV에서 봤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현주 : 어 이걸 쌍둥이 꽃문양이다. 꽃이 두 개

(12월30일 화요일)

유아들은 물감이 순지에 스며드는 것을 호기심 있게 살펴보며 접는 방법에 따라 다른 문양이 나타나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색을 바꾸어 가며 염색을 해 보았다. 조형에 친숙한 점이 있어 가위를 사용했는데 접고 오려 염색하고 붙이는 과정을 겪으면서 재미있게 작업하였다. 유아들은 접은 채로 대칭이 되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한 번 더해요"라는 말을 하며 시간이 부족하다 느껴질 정도로 많은 흥미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만들어냈다.

탁본은 방법이 쉬워 유아들이 한지의 특성과 문양을 이해하는데 적합한 활동이다. 탁본은 조각, 비석, 기와, 기물 따위에 오목새김이나 돌을새김으로 새겨진 글씨나 문양을 종이에 그대로 떠내는 표현 기법이다. 탁본 할 곳

에 흡습성(吸濕性)이 있는 종이를 대고 물을 뿌려 붙인 후 거의 마르면 솜뭉치에 먹을 묻혀 두드리는 습탁(濕拓)과, 흡습성이 없는 얇은 종이를 대고 탁본용의 연한 인경묵으로 종이 위를 문지르는 건탁(乾拓)이 있다.

다음은 탁본을 하면서 유아들이 반응을 보인 사례이다.

희수 : 어~어떻게 될까? (한지 위에 덮은 다음에 뱅뱅이로 두드린다.)

윤선 : 왜 까맣게 그려진다.

철민 : 그대로 나온다. 똑같다. (박수치는 행동을 한다.)

(철민과 희수는 한지에 탁본을 뜬 문양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문양을 다시 본다.)

희수 : 거울같이 똑같아. 쌍둥이 (입을 쑥 내밀며)

승용 : 샷샷 떠~(한지를 띄어내는 과정에서 승용은 조심스레 행동을 한다.)

(1월8일 목요일)

희수는 탁본을 하는 과정을 통해 기하학문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에 즐거워하며 한번 똑 같은 문양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쌍둥이라는 표현을 하였다.

다음은 유아들이 한지를 접고 올려내어 조그만 모양을 만들어 냈다.

승희는 접어서 오린 한지를 펼치면서 예쁘다며 다른 종이도 접어 오리자는 제안을 했다.

승희 : 펼치니까 예쁜 모양 나온다. (한지를 펼치며)

꽃문양 같다.

남규 : 내 건 기하학 문양 같아.

민주 : (핑킹 가위를 가지고 오며) 이 걸로 자르니까 더 멋있다.

윤선 : 끝에 동그랗게 자르면 꽃문양 나온다.

철민 : 세모로, 세모로 계속 접어봐. 이것 봐. 히히!

(웃으며 자신의 한 작품을 들여 보인다.)

유아들 : 왓~ 어떻게 한 거야?

철민 : 이렇게 세모로 (다른 유아들에게 가르쳐 준다.)

----- 중략 -----

승희 : 색종이도 접어서 해봐요~

다른 유아들과 같이 색종이를 접어 펼쳐본다.

윤선 : 그런데 여러 번 접으니까 잘 안돼~

세 번 밖에 못 접어.

승희 : 맞아. 한지는 5번도 접었는데.

희수 : 이제 이 걸로 해보자. (복사용지를 들여 보이며)

(복사용지를 접어서 가위로 잘라본다.)

승용 : 비슷하다.

철민 : 그런 이걸 (포장지를 보이며)

희수 : 그건 색종이보다 더 두껍잖아.

(1월15일 목요일)

승희는 종이를 접어 가위로 오리고, 펼치면서 다른 종지와 비교하여 한지의 특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유아들은 한지를 접고 가위로 잘라 여러 가지 문양을 응용해서 표현하였는데, 한지를 접고, 오리는 과정을 통해 전통문양의 두드러진 특징인 반복 문양 형식을 발견하고 있다.

유아들은 작품이 주는 메시지 또는 느낌이나 인상을 이야기를 하며 미적 대상의 특징과 의미를 전체적으로 관련짓는 것으로 작품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가치 전환적인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한지를 활용한 미술활동을 진행하면서 유아들은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보려고 노력함으로써 작품은 사물의 단순한 재생이 아니라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느낌에 대한 표현이 다양하고 자연스러워졌으며 재료를 자유롭고 능숙하게 활용하기도 했다. 특히 창의적인 자신의 문양을 만들 때에는, 미술적 표현과 언어적 표현을 일치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유아들은 이러한 다양한 조형 활동을 통해 전통 생활 소재인 한지와 전통문양과 친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린이 집에 다니는 5세 유아들이 전통문양 및 한지를 활용한 미술활동을 통해 전통미를 발견해가는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전통문양을 알아 가면서 나타나는 유아의 반응과 그 반응을 유발하는 동기는 무엇인지,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양을 탐색하는 과정은 새로운 친구와의 만남과도 같다. 전통문양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유아들의 반응은, 문양과의 첫 만남에서 낯설음과 호기심을 경험하게 된다. 자기를 소개하면서 관심을 갖고 탐색해 가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둘째, 문양을 활용한 미술활동은 새로운 친구와 친해지는 과정과도 같다. 유아들은 미술활동을 통해 문양과 만나고 창의적인 표현을 즐기며, 새로운 놀이로 발전 시켜 나가면서 문양과 친해진다.

셋째, 문양의 상징성은 친구와의 갈등으로 표출되는 것에 비유 할 수 있다. 창의적으로 표현된 문양의 상징적 의미는 그 집단 구성원간의 동의 하에 이루어 질 수 있다. 창의적으로 표현된 작품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구성원과의 갈등이 초래된다. 또한, 유아들은 현대적으로 재해석 된 문양과 전통문양의 구별을 혼동하고, 그에 따른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넷째, 일상생활에서 발견하는 문양의 표상은 그리운 친구를 떠올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길을 걷다 마주친 사물의 형태가 갖는 규칙은 문양과 연계되며, 문양을 발견함으로 일상 속에서 전통과 친숙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다섯째, 전통문양 및 한지를 활용한 미술활동은 결국 전통미와 우정이 돈독해짐으로 비유할 수 있다. 자연에서 오랜 공정 과정을 겪은 한지와 만남은 자연으로 함께 떠나는 여행과도 같다. 이로써, 전통이라는 것이 단순히 과거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닌, 일상생활 속에 스며있으면서 동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경험하게 된다.

전통문양 및 한지를 활용한 미술활동을 경험하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또 다른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통문양 및 한지를 활용한 미술활동에 관한 5세 유아의 반응에 대한 문화 기술적 연구로,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전통문양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전통문양의 조형성에 나타난 패턴을 통해 분류의 개념과 규칙을 인지하고 범주화 하였다. 임지룡(1997)에 의하면 범주화란, 다양성 속에서 유사성을 파악하고 사물들과 사건들을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것끼리 하나로 묶는 인지활동으로 본다. 범주화 능력은 구별하기와 종합하기로 요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 강명희(2001)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별하기가 전제되어야 하며, 부류가 같은 것끼리 무리 짓기 위해서는 종합하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범주화 활동과 관련해 브루너에 의하면,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나 사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포함되는 분류체계를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한다. 전통문양 및 한지를 활용한 미술활동을 통해서 유아들은 기하학 문양의 반복과 좌우대칭으로 이

루어지는 규칙에 의한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여러 종류의 문양을 분류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전통문양 및 한지를 활용한 미술활동을 통해 유아들은 전통문양의 상징적 의미를 응용하고 유아들 스스로의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전통문양의 상징은 문화적 약속의 하나이다. 문양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매개물인 동시에 한 나라의 종교 및 사상, 생활방식, 풍습까지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문양의 선택과 응용은 장식성이나 조형성과 함께 내재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전통문양 및 한지를 활용한 미술활동을 통해서, 유아들이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만이 가지는 합의와 규칙에 의해서 돌출되는 문화적인 현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종철(2001)은 상징성의 분석을 통해 문양의 새김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 어떤 목적으로 어느 위치에 어떤 문양을 배치하고 어떤 양식으로 구성되느냐를 분명하게 의도한 결과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전통문양 및 한지를 활용한 미술활동을 통해서 유아들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 전통문양의 상징이 갖는 의미는 좀더 광의적이며, 상징은 한 집단에서 새로운 문화가 자생하게 되는 초석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전통문양 및 한지를 활용한 미술활동 과정에서 유아들은 전통문양의 상징적 의미를 응용하여 창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었다. 유아들은 우리의 전통문양을 감상하고 문양을 활용한 작품을 만들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보려고 노력함으로써 작품이 사물의 단순한 재생이 아니라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서 함양과 창의성 계발은 물론 디자인 능력도 신장되었는데, 문양의 이러한 특징은 유아들의 미술 표현과 언어적 표현을 통합시키고 구체화

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넷째, 전통문양 및 한지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유아들은 조상들의 생활습관과 전통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미의식은 지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것, 의지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인 것이 중심적인 계기를 이루고 직접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작용과 느끼는 것이 서로 어울려 감성적인 체험으로서의 성격을 형성하는 것이다. 유아들은 한지를 만드는 제작 공정을 통해서 자연과 동화되는 선조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김영주(2000)는 미의식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의 자연풍토이며 그 속에서 예술의 생활화가 이루어 졌고, 특히 생활 속에서 예술을 도모했던 것이 한국민족의 특수성이라고 말한다. 더구나 자연 그 자체가 물질적 토대가 되는 농경사회의 풍토는 자연과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미의식을 형성한다고 했다. 유아들은 전통문양 및 한지를 활용한 미술활동을 통해서 조상들의 삶을 이해하고 전통 미술품을 통해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와의 차이를 분별하고 표현의 우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미적 안목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전통문양이 새겨진 회화, 조각, 음식, 의복, 공예품을 통해 옛 조상들의 문화를 경험하며 옛 선조들이 남긴 생활기물이나 의기들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각기 그 시대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과 생활관습, 종교 신앙적 사유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었다.

다섯째, 전통문양 및 한지를 활용한 미술활동을 통해 유아들은 생활 속에서 전통문양을 발견하고 연상을 해낼 수 있었다. 유아들은 전통문양에 익숙해지고 나서 직접 문양을 보지 않고도 경험한 분류 체계를 토대로 머릿속에 연상을 할 수 있었다. 전통 생활소재를 미술활동의 소재로 사용하는 것은 유아들로 하여금 미술이 생활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아들은 한복을 탐색하면서 한복에 새겨진 문양의 형태뿐만 아니라 한복의 곡선미를 발견하였고 특히, 한복의 소매가 큰 곡선인 것과 한복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호기심을 나타냈다. 또한, 한복과 마찬가지로 기와에서 곡선의 미를 발견한 유아들은 우리의 전통문양을 현대적 느낌의 직선보다는 곡선이라는 기본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유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전통미를 발견하고 문양의 심미성을 통해 아름다움을 살펴 찾는 안목을 키울 수 있었다. 전통이 과거의 시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가까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여섯째, 전통문양 및 한지를 활용해 창작 문양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유아들은 현대와 전통미의 조화를 꾀하는 표현의 자유로움을 체험할 수 있었다.

전통문양에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미의식과 정형화 된 조형양식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조상들의 여유와 풍류를 느낄 수 있었다. 유아들은 전통문양을 활용한 창작 문양을 제작하면서 자신의 느낌에 대한 표현이 다양하고 자연스러워졌으며 재료를 자유롭게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이상 여섯 가지로, 전통문양 및 한지를 활용한 미술활동을 통해서 유아들이 접하는 전통문화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며 변화해 가는지 알 수 있었다. 이는 전통문화의 현대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강영미(1999)는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소재를 탐색함에 있어 교육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며 유아들의 발달단계에 알맞은 소재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문양과 한지를 미술활동에 활용함으로써 전통생활소재가 유아들의 발달단계에 알맞은 소재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전통문화가 유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 반응은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전통문양은 민화와 같은 다른 소재들에 비교하여 볼 때, 유아들이 탐색하고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표현활동이 가능하여 유아들이 다양한 표상활동을 개발하였다. 또한 전통문양에 내재되어 있는 상징성은 새로운 문화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시발점으로서, 전통문양의 고유한 기능뿐만 아니라 전통문화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역할로 가치가 전환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우리 민족의 미의식과 표현 양식을 엿볼 수 있도록 하여 유아들이 우리 조상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기르고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갖도록 하였다. 유아들은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통생활 소재인 한지와 전통문양과 친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전통문양 및 한지를 이용해 미술활동을 구성하여 실행해보고 그 반응을 살펴본 최초의 연구였다. 전통미술을 이용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음에 반해 유아교육 분야에서의 전통미술을 이용한 질적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통미술의 전통 교육적인 가치를 생각해 볼 때 유아 교육 분야에서도 이에 전통미술을 소재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2. 제언

이상의 논의 및 결론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5세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밖의 다른 연령의 유아들이나 교사의 반응을 살펴볼 수

없었다. 후속 연구에는 다양한 유아와 교사와의 상호작용과 교사의 반응에 대한 연구가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는 제한된 기간동안에 참여 관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아들의 전통미에 대한 반응이 전개해 나아가는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 할 수 없었던 한계점이 있다. 유아의 반응 및 해석 과정에서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좀더 다양한 기관에서 보다 많은 관찰 자료를 축적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소재를 탐색함에 있어 교육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며 유아들의 발달단계에 알맞은 소재를 찾을 필요가 있다. 전통 민속품을 포함한 다양한 민속미술에 주의를 기울여 이를 이용해 조형 활동을 구성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전통 조형품을 이용한 미술활동이 구성되어 전통미를 발견해내고 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지역에서 소수의 관찰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범위의 연령을 대상으로 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문화를 만들어내는 요인은 환경적인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다양한 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유아들 사이에서의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미술활동에 활용된 전통 조형품은 떡살, 문양, 한지, 민화와 도

자기 등이 있으나, 전통미술의 전통 교육적인 가치를 생각해 볼 때 전통미술을 소재로 한 통합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전통문양을 이용해 미술활동을 구성하여 실행해보고 그 반응을 살펴본 문화 기술적 연구로, 전통문화교육의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는 많았으나 전통미가 유아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반응을 살펴본 연구는 없었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그 효과를 가능한 다양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 하다보니 연구결과의 분석이 집중하여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전통미에 대한 반응을 풀어내기 위해 특정 미술시간을 이용한 제한점이 있으며, 미술활동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아들이 문양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발전시키고 전개해 나가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에는 디자인 기법의 발달과, 구매욕을 충동하기 위한 상업주의의 요청으로 상품의 문양이 많아지는 경향을 볼 수가 있다. 복식(服飾)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남아 있는 문양 장식과 함께, 본능에 근거한 문양으로의 향수가 되살아 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세계화가 가속될수록 고유의 전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사료 된다. ‘옛 것을 익히고 나아가서 새것을 안다.’ 라는 옛말과 같이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터득한 진리를 현실에 응용하여 사라져가는 민족 전통미를 발견해 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계발하고 세계적인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유아들에게 전통미술에 친숙해 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어 전통미를 근간으로 새로운 문화 선진국의 가치를 세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영미(1999). 전통미의 표현을 통한 한국미의식 함양에 관한 연구.
청주교육대학교 교육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 곽승주(2003). 영아-교사 간 상호작용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 성신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곽한숙(2003). 한국화 미술활동을 통한 유아의 미적반응연구. 성신여자 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경숙(2002). 어린이집 영아들의 갈등에 대한 문화 기술적 연구. 성신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태명(1995). 한국문화 상징사전. 동아출판사.
- 금광복(1994). 색지공예, 대원사.
- 김기숙(2002).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미술교육 적용. 사례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덕희(2003). 그림상징에 대한 유아의 표상능력과 이해능력발달. 국민 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미경(2002). 한지를 활용한 미술지도 방안 연구. 춘천교대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김병규(1995). 세계화 시대에 꼭 필요한 전통문화 계승교육. 충북교육.
- 김병학(1996). 민화. 대원사.
- 김선희(1999). 한국전통문양을 활용한 학습지도방안 연구. 숙명여대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옥자(2001). 다양한 표현기법을 통한 아동화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란(2000). 초등학교에서 고궁감상을 활용한 효율적인 전통미술지도 방안 연구 : 6학년에서 전통문양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1995). 창의적 표현개발을 위한 표현 기법.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인경(2001). 백합반 유아들의 조형 활동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영(2001). 전통문양의 미술 교육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 카톨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진규(1994). 초등미술교육에 있어서 전통미 지도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학(1994). 민화, 대원사.
- 김현수(2002). 떡살을 이용한 미술활동이 유아의 표상 및 전통문양 이해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주(2003). 초등학교 미술활동에서의 한국 전통미 교육에 관한 지도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의웅(1990). 한국전통문양의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혜숙(2002). 한국 전통문양 감상과 응용을 통한 미술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수경 (1998). 초등전통미술교육을 위한 민화학습 프로그램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선미(2002). 초등미술교과에서 전통미술의 이해지도에 대한 연구. 인천 교육대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선희(2001). 전통문양의 미술 교육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 논문.

- 박은덕(2001). 초등디자인 기초교재 및 지도서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조형 교육 제 18집. pp17~48
- 박혜준(2003). 전통 도자 문양을 응용한 미술활동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
학원석사학위 논문.
- 상기호(2001). 전통 오색전지 공예. 한림출판사.
- 손영학(2001). 한국인의 숨씨, 다할 미디어.
- 서점순(1997). 전통문양 감상지도를 통한 창의적인 한국미의 표현 능력 신
장. 부산교육 P292, P72~78.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석주선(1998). 우리 옷 나라, 현암사.
- 신은초(2000). 도자기 명칭 이해를 위한 전통미 감상지도 연구. 한국
교원대.
- 안준희(2003). 전통문양 이해를 통한 문양디자인 교육프로그램 연구. 대구
카톨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준철(1994). 한국의 전통적인 조형의식 이해.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 논문.
- 안지은(2003). 전통문양을 활용한 미술교육 연구. 건국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경전(2003). 전통미 함양을 위한 유아미술교육 프로그램개발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지원(2002). 한지공예의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유경숙(1999). 구성주의에 기초한 밀가루점토 활동 구성방식에 따른 유아
의 과학적 개념기술 및 태도의 차이분석. 중앙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유명희(1999). 다양한 방법을 통한 아동의 미술표현에 대한 고찰. 단국대

-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혜령(1997). 질적 아동연구를 위한 해석학의 방법론적 시사. 아동학회지 제 18권-2호.
- 유혜윤(2003). 전통문양을 활용한 다문화 미술활동의 효과. 덕성여대 대학원.
- 윤소윤(2003). 전통 도자기 감상을 통한 한국 전통미 지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우명자(1998).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에 따른 자전거 프로젝트 전개과정.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기선(2003). 무늬, 호영 문화사.
- 이미희(2003). 생활 속에서의 미술 찾기 활동이 유아의 미적 반응과 표현 능력에 미치는 효과 덕성여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선화 (2002). 미술수업에 있어서 한지활용에 대한 연구. 우석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송근, 김성범(1998). 전통문화와 미래사회. 대구대학교 출판부.
- 이순길(2000). 초등학교 한지공예 기법을 이용한 전통미술지도. 부산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승철(2002). 우리한지, 현암사.
- 이세진(1998). 초등학생의 민화감상지도에 관한 연구. 숙명 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진(2001). 초등미술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한국전통문양지도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화(2002). 미술 수업에 있어서 한지 활동에 대한 연구. 우석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지현(2003). 초등미술교육에 있어서 민화를 활용한 미술표현활동 연구.

- 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현아(1999). 미술교육을 통한 전통문화 학습. 학국 교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현진(2001). 전통문양을 통한 전통미술교육연구. 경성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두빈(1999). 한국의 민화, 서문당.
- 임미진(2002). 초등학교 미술활동에서의 한국 전통미 교육에 관한 지도 방안연구.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상교(2002). 떡살의 이용양상과 문양의 의미. 안동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현주(2000). 전통한지를 통한 미술교육 효과증진 방안.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미경(1999). 미적 요소에 기초한 활동중심통합프로그램이 유아의 미술 표현능력 및 미술 감상능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삼옥(2000). 초등학교에서 도자기 문양을 활용한 전통미술지도 방안. 한국 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경화(2003). 의미탐색 전통문화 교육과 유아의 국가 정체성 형성.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정현(2000). 꽃담, 대원사.
- 조용환(1998). 질적 연구와 양적연구. 교육인류학 연구회 1998년 동계 학술 대회. <교육에서의 질적 접근, 그 방법과 쟁점>
- 조효순(1994). 복식, 대원사.
- 조현호(1997). 전통창살의 고찰과 실내디자인에의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 안양전문대학 논문집 20(97. 12.). 457~472

- 추경숙(1996). 한국 전통문양의 자료제작 활용을 통한 한국인의 가치관 함양. 부산교육 286 pp117~122
- 최순자(2001). 한국의 떡, 한국외식정보.
- 최순자(1998). 전통한과, 한국외식정보.
- 표옥선(1999). 전통문양 교육을 통한 디자인 능력신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영화(1994). 전통자수, 대원사.
- 홍용희(1998).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와의 관계. 교육과학 연구소. 28, 113~129
- 허 균(1996). 전통문양. 대원사.
- Amabile, T.M.(2000). 창의성과 동기유발. 서울: 창지사.
- Berrsson,R.(1986). Why Art Education Lack Social Relevance :A contextual Analysis. Art Education. July 1986.
- Chalmers,F .G(1992)DBAE as multcltural education, Art Education, 45(3),16-24
- Fane,A.,&Sandstrorn,L.K(1988). KnowingChildren: Participant observation with minors. Newbury part: Sage. New Jersey: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 Robert S.Siegler(1995). 아동사고의 발달. 미리내.
- Schickedanz, J.A,&York,,M.E.(1997). *Expressive Arts. New Jersey:* Prentice Hall.Inc.
- Strauss,A,&Corbin, J.(1990). Basic of qualitaive Research: Grounded Theor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t: Sage.

ABSTRACT

A study on Art Education of Five-Years-Old by using Traditional Pattern and paper, Han-ji : An ethnographic study

Kwon, Ji, Yeo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 went through with was to find out how children at their ages of five would get to learn the korean traditional beauty by observing children's reaction through their art-activity with the korean traditional patterns and paper, Han-Ji. In order to accomplish the study, so called, 'an ethnographic Study' to join and observe the subject's activity in reality has been used.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five-year-old children in H-Children's House, a kind of day-care center or kindergarten in Suwon. The term of the study was about 9 weeks from december in

2003 to february in 2004 and 'an ethnographic Study' was performed twice a week during the term in which I collected data for the study through observing and interviewing the children informally in their lives directly, teachers, videotaping, taking pictures as well as consulting lots of different documents. For analyzing the collected data, were observing records, interviewing records, video tapes and all kinds of documents to be classified, organized and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I've come to be able to understand and interpret children's reaction of the art-activity with the korean traditional patterns and paper, Han-Ji.

First, the children were not only to find each of the patterns' characteristics through the art-activity with the traditional patterns and Han-Ji but also to recognize and tell each of the patterns with their own feelings or private thoughts. In addition, they could find each of the patterns' art characteristics such as line, plane and appearance etc, through which they also got to realize the concept and regulation of classification of patterns resulted from their recognition over the patterns' art characteristics. Once they came to understand the formulation of the patterns, they seemed to give more logical observation to the patterns and classify the patterns based on each of the patterns' characteristics, what is more, without the offered instructions from their teachers they could set up their own knowledge over the patterns via their interaction with each other in a group of kids.

The children applied the patterns' symbolic meanings to their own works of art. In the group, they experienced the process of how symbols could be applied and they developed linguistic and nonlinguistic expressions in the process of interacting one another with the job. In this observation, it's been improved that playing with patterns could get art-related expressions and linguistic expressions unified and concreted

Second, the children got to find out our Traditional Beauty through the art-activity with the Korean traditional patterns and Han-Ji. They also came to get interested in our traditional beauty as well as our ancestors' life practice in the process of making Han-Bok, Korea's traditional costume, with Han-Ji and seemed to realiz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Korea's traditional beauty is the beauty of curve rather than beeline considered to be more used in modern society in art-activity getting to feel our ancestors' inner resources with the nature. Furthermore, they could not only improve their own creativity and the sense of beauty in the activity of making Han-Bok by transforming and assembling the ingredients for the process, the children not knowing exactly how to make Han-Bok communicated with one another and even cooperated and took their own parts in making Han-Bok now and then. This process has given me something to think about things that children can deal with to keep our traditional art works.

Third, the children got to have the ability to pull some images of patterns out of their heads without taking any glimpses of the patterns to which they already got used and began to realize some traditional patterns scattered in their surroundings such as the patterns painted or inscribed on the walls and bridges. They even linked the images to things around them.

Forth, in the process of art-activity with the patterns and HAN - Ji, they seemed to have an experience of putting beauty and traditional beauty in harmony expressing freely what they thought or felt over the activity at the time.

By trying to express what they were thinking or feeling using different ingredients, I was sure, they ended up realizing that works of art wouldn't be mere imitations of things but the results of one's own mental activity. No doubt, I found some of the children improving their expressing skills more naturally and better and taking better advantage of the ingredients more freely and skillfully. Especially, when it came to making their own creative patterns, were they even considered to try to correspond their art expression with linguistic expression.

In case of the unique activity, children could get familiar with those traditional patterns and Hna-Ji, through having taken a notice of our traditional concept of beauty and expression in art and understand somehow our ancestors' life practice and culture in a way that is likely for the children to lead to their willingness to hand over our traditional culture and hand down it to their descendants in the future.

부록 1. 전통문양 및 한지를 활용한 미술활동 운영계획안

전통문양 및 한지를 활용한 미술활동운영 계획안은 전통문양을 활용한 수업 계획안(김지영, 2001)과 미술교육에서의 한지 활용(김미경, 2002), 떡살을 이용한 미술활동(김현수, 2002) 등의 문헌을 탐색하고 관련내용을 추출하여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을 고안하였다.

〈표 1〉 전통문양 및 한지를 활용한 미술활동 운영계획안 구조

구성	회차	활동	소재(문양)	재료(한지)	표현활동
도입	1	전통문양 자료집 감상		전통문양자료집	감상
전개	2	동물문양 알아보기 I	용, 귀면 문양, 학, 봉황문양	화선지, 사포, 크레파스	찍어내기
	3	동물문양 알아보기 II		낙수지	그리기
	4	기하학 문양 알아보기 I	길상, 창살,	화선지, 순지	프로타주
	5	기하학 문양 알아보기 II	태극문양	순지	염색
	6	자연 상징 문양 알아보기 I	해, 달, 바람,	한지, 크레파스	보고 그리기
	7	자연 상징 문양 알아보기 II	구름문양	화선지, 떡, 물 감	탁본 찍기
	8	식물문양 알아보기 I	매화, 난초, 국	닥지	데칼코마니
	9	식물문양 알아보기 II	화, 소나무문양	화선지, 색 한지	찢어 붙이기
	10	경기도 박물관 견학			견학
	정리	11	창의적 문양 만들기	심미성, 조형감	실패, 필통
12		문양목걸이 만들기	각, 주제표현, 창 의성, 관찰력, 기	닥지, 지점토	
13		한복을 만들어보기 I	법의 융통성,	색한지, 닥지	두건 만들기
14		한복을 만들어보기 II	재료활용	색한지, 닥지, 화선지	협동 작품
평가	15	자료집 감상		전통미 이해	감상
	16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전통미		전통미 발견	토의

부록 2. 전통문양 및 한지를 활용한 미술활동운영 계획안

<표 2> 전통문양 및 한지를 활용한 미술활동운영 계획안

회차	활동 명	관련영역	목표 및 방법
1	전통문양 자료집 감상	탐색, 감상	<p>목표 : 전통문양을 탐색하고 종류의 다양함을 안다.</p> <p>자료 : 사진 자료집</p> <p>방법 : 사진자료집을 통해 전통문양을 감상하고 전통문양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본다.</p>
2	동물문양 알아보기 I	탐색, 표현, 감상.	<p>목표 : 동물문양의 종류와 특징, 의미를 탐색한다.</p> <p>자료 : 전통문양 사진 자료집, 사포, 화선지, 크레파스.</p> <p>방법 : 동물문양의 특징을 알고 하나를 선택해 사포 위에 그린 뒤, 화선지를 덮고 다림이질을 하여 나타낸 문양을 살펴보고 다른 유아의 작품도 감상 한다</p>
3	동물문양 알아보기II	탐색, 표현, 감상.	<p>목표 : 한지와 종이를 오감으로 탐색하고 그 위에 문양을 그렸을 때 나타나는 반응 비교해 본다.</p> <p>자료 : 비디오자료. 한지(낙수지, 닥지, 화선지, 색 한지), 포장지, 벽지, 복사용지, 연필, 크레파스, 색연필</p> <p>방법 : 재료로써의 한지를 다른 종이와 비교하여 보고 한지를 탐색한 후 전통문양의 한 종류인 동물문양을 한지 위에 그려 본다</p>
4	기하학문양 알아보기 I	탐색, 표현, 감상.	<p>목표 : 여러 가지 기하학 문양을 관찰하고 기하학 문양의 특성을 이해한다.</p> <p>자료 : 화선지, 순지, 문양사진 자료집, 문양 틀,</p> <p>방법 : 전통문양 틀을 한지 밑에 놓은 후 크레파스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프로타주를 한다</p>
5	기하학문양 알아보기II	탐색, 표현, 감상.	<p>목표 : 순지를 이용해 염색을 하고 자연스럽게 나타난 문양에 대해 이야기 한다.</p> <p>자료 : 순지, 실, 물감</p> <p>방법 : 순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거나 실로 묶어 우연히 나오는 문양을 보고 이야기를 나눈다.</p>

회차	활동 명	관련영역	목표 및 방법
6	자연상징 문양 알아보기 I	탐색, 표현, 감상	<p>목표 : 여러 가지 자연상징문양을 관찰하고 자연상징문양의 특성을 이해한다.</p> <p>자료 : 한지(색 한지, 화선지), 크레파스, 색연필</p> <p>방법 : 자연상징문양을 관찰하고 자연상징문양을 보고 그린다.</p>
7	자연상징 문양 알아보기 II	탐색, 표현, 감상	<p>목표 : 탁본 찍기를 통해 한지의 흡수성과 자연상징문양에 대해 안다.</p> <p>자료 : 전통문양 틀, 한지(화선지), 먹, 솜방망이.</p> <p>방법 : 전통문양이 새겨진 틀을 한지 밑에 놓고 솜방망이에 먹을 묻혀 문양을 새긴다.</p>
8	식물문양 알아보기 I	탐색, 표현, 감상	<p>목표 : 여러 가지 식물문양을 관찰하고 식물문양의 특성을 이해한다. 전통 한지의 닥지에 적합한 재료 및 표현 기법을 알아보고 우연에 의한 독창적인 반응을 살펴본다.</p> <p>자료 : 식물문양자료집, 닥지, 물감</p> <p>방법 : 닥지를 반으로 접어 여러 색의 물감을 이용해 식물문양을 그린 후 닥지를 펴서 우연히 나온 식물문양을 살펴본다.</p>
9	식물문양 알아보기 II	탐색, 표현, 감상	<p>목표 : 한지와 다른 종이와 비교 해 보고 한지 만드는 과정을 안다.</p> <p>자료 : 그림 동화책(한지 돌이, 보림 출판사) 색 한지, 풀, 가위</p> <p>방법 : 식물문양중 하나를 선택해 색 한지를 찢어 붙인다.</p>
10	경기도 박물관 견학	탐색, 표현, 감상.	<p>목표 : 옛 조상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알고 민속조형물속에서 한지와 전통문양을 찾아본다.</p> <p>방법 : 박물관 견학 전 지켜야 할 상황과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이야기한다. 견학 중 전통 조형 물 안에서 나타나는 전통문양과 한지를 중심으로 감상하고 견학 후 회상하기를 한다.</p>
11	창의적 문양 만들기	탐색, 표현, 감상	<p>목표:유아 자신이 생각한 문양을 활용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창의적 작품을 만든다.</p> <p>자료:빈 우유 팩, 풀, 가위, 테잎, 한지</p> <p>방법:전통문양을 활용해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는지 얘기 해보고 유아들의 창의적인 문양을 디자인 해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든다.</p>

회차	활동 명	관련영역	목표 및 방법
12	문양목걸이 만들기	탐색, 표현, 감상	<p>목표 : 문양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장식품인 목걸이를 만든다.</p> <p>자료 : 지점토, 닥지, 풀</p> <p>방법 : 지점토를 이용해 전통문양 틀을 만들어 굳힌 후 한지를 붙인다.</p>
13	한복 만들기 I	탐색, 표현, 감상	<p>목표 : 실제 한복을 관찰하고 창의적으로 한복을 만든다.</p> <p>자료 : 실제 한복, 닥지, 색 한지, 풀, 가위, 전통문양 틀.</p> <p>방법 : 협동작품으로 한복에서 씌우는 두건과 한복의 모양의 본을 만든다.</p>
14	한복 만들기 II	탐색, 표현, 감상	<p>목표 : 문양을 찍어보고 문양을 디자인 해 봄으로서 미적 감각을 기른다.</p> <p>자료 : 연필, 가위, 풀, 전통문양 틀, 닥지, 화선지, 색 한지</p> <p>방법 : 한복 본뜬 것 위에 한복에 어울리는 창의적인 문양을 만들어 붙인다.</p>
15	자료집 감상	탐색, 감상	<p>목표 : 음식과 의복 등 생활 속에서 미를 표현한 조상들의 지혜를 경험한다.</p> <p>자료 : 문양이 새겨진 의복, 음식사진, 문양이 새겨진 한지공예품</p>
16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전통미	탐색, 표현, 감상	<p>목표 :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전통문양에 대해서 토의를 나눈다.</p> <p>자료 : 전통문양자료집, 한지공예자료집, 문양과 한지를 활용한 현대적 소품.</p> <p>방법 : 유아들이 스스로 전통문양이 들어있는 생활 소품/도구를 준비해 와서 오감을 이용해 탐색해보고 문양과 한지를 응용해서 만들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 해본다.</p>

부록 3. 미술 수업 모형

미술 수업 모형

미술수업모형은 한국교육 개발원에서 구안한 수업의 모형(교육부, 1997)과 박수경의 민화학습 프로그램(1998), 이해주의 학문기초 유아미술 프로그램 개발(2000)을 근거로 미술수업모형을 만들었다.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기 : 주제에 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과정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즐기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전통미를 느끼고 인식한다. 자유로운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유아들은 또래의 생각을 듣고,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거나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예시작품 감상하기 : 비디오나 사진 자료집을 통해 감상을 하며 자신들의 생각을 재구성할 기회가 된다. 유아가 예시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서로 다른 색과 형태를 시각적으로 비교하는 사전 경험은 사물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하는 태도를 강화시켜 줄 수 있다.

-재료 및 표현 탐색하기 : 탐색 과정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느끼며 적극적으로 관찰하며 탐색하는 태도를 기른다. 논리적인 관찰을 하고 관찰에 대한 의문과 알고자 하는 반응이 생기게 된다.

-표현하기 : 유아들은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면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발달시킨다. 표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물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확장하게 된다.

-유아들의 작품 감상하기 : 유아들은 다른 유아의 작품을 감상하고, 그에 따른 느낌을 이야기 하고 다른 점과 생각들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이나 표현 방법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사고를 체계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